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67 1982년 7월 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ly 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JUL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어린이야구붐 토론토상륙… 첫 대회서 연합팀 우승

"스트라익·아웃"소리와 함께 통일팀의 마지막 공격이끝나자, 연합교회팀 꼬마들의 "와"하는 함성은 코로네이션·파을 쩡쩡울렸다.

코너를 찾아 꽂는 볼의배합과 스피드·앤드·슬로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투수 이래리군의 피력은, 강타를 자랑하던 통일팀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우승컵을 가볍게낚아챘다.

3일아침 9시37분 박영철 부총영사의 시구로 시작된 제1회 어린이 야구대회는 모두 6개팀이 분전했다. 연합교회가 통일팀을 14: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결승전이 끝난 시각은 8시17분. 제1회 리틀야구는 장장 11시간에 걸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합, 천주, 침례, 한인 4개의 교회팀과 오샤와의 세종한글학교, 야구협회 김문량씨 손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로렌스지역팀 통일등 6개팀이 참가한 제1회 어린이 야구대회는, A조 연합, 천주, 한인과, B조 통일, 침례, 세종으로 나뉘어 예선전을 가졌다.

A조에서는 3개월전부터 팀을 구성, 매주 연습을 거듭해온 연합교회팀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천주, 한인교회 팀을 10:2, 10:1로 각각 누르고 2승으로 가볍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A조 2위다툼인 천주교회대 한인교회의 대전은 1회에 3점을올렸던 한인교회가 천주타선의 폭발과 투수 김민수군의 활약으로 12:3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B조에서는 통일팀의 활약이 돋보였다. 첫게임에서 23:0으로 침례교회를 가볍게 누른 통일팀은, 예선2차전에서 세종팀을 12:1로 눌러, B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세종과 침례의 대전은 대회 최연소선수 7세의 김대니스군을 비롯한 침례팀의 분전에도 불구, 19:1로 세종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통일과 천주팀의 준결승전.

1회전에서 통일팀이 2점을 선취하자, 천주팀이 2점을 따라잡았고, 3회전서 통일이 1점을 추가하자 천주도 곧 1점을 만회했다. 동점 행렬은 4회에서 갈라졌다. 통일의 4번타자 스티브군은 2점짜리 홈런을 날렸다. 천주교회는 송재윤군의 3루타로 1점을 만회 5:4로 바짝 추격했으나, 5회초 공격에서 1점을 추가한 통일팀은 6:4로 천주교회를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대 통일의 결승전은 케네디안리그에서도 활약하는 이래리군의 마력이 통일팀을 꼼짝 못하게 만든 한판이었다.

1회초 플레이볼이 선언되자마자 통일팀의 1번타자 케처 마셀로군은 재치있게 3루앞 번트로 휘스트에 진출했으나, 후속타자의 불발로 선취득점의 기회를 놓쳤다.

동생 이바비군과 배터리를 이룬 연합의 피처 래리군은 스피드·앤드·스로우(Speed and Slow)를 배합 통일팀의 타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이래리군의 역투에 힘입은 연합타선은 2회에 폭발 타자들이 일순하면서 대거 7점을 거두었다. 연합팀은 6회까지 계속 추가 득점, 14:0으로 대망의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우승컵을 치지했다.

이번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연합의 투수 이래리군에게 돌아갔고, 투수상은 통일팀 투수 김에디군, 타격상은 준결승, 결승에서 8타수 7안타에 총 10루타를 올린 연합교회 주장 도날드군에게 돌아갔다. 미기상은 천주와의 3·4위전에서 안타성타구를 건져 1루로 재빨리 송구, 아웃시켰던 세종팀의 윤타미군에게 돌아갔다. 감투상은 이번대회 최연소선수인 침례교회팀의 김대니스군에게 돌아갔다. 응원상은 깜찍한 연합교회 취어리더들(Cheer Leadeils)에게 돌아갔다. 빨간색의 웃도리와 하얀 치마로 500관중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임효신선생 지도아래 2개월간 연습했다는 이 아가씨들은, 상대팀의 꼬마총각들을 뇌쇄시켜 연합교회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대회전적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
연합 10: 2 천주
천주 12: 3 한인
연합 10: 1 한인
〈B조〉
세종 19: 1 침례
통일 23: 0 침례
통일 12: 1 세종
〈준결승〉
연합(A조 1위) 24:4 세종(B조 2위)
통일(B조 1위) 6:4 천주(A조 2위)
〈3·4위전〉
천주 14:3 세종
◆시 상
〈단체상〉
◉1등 연합교회
◉2등 통일어린이야구단
◉3등 천주교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이래리군(연합투수)
◉투수상: 김에디(통일투수)
◉타격상:장도날드(연합)
◉미기상: 윤탐(세종)
◉감투상:김대니스(침례)

결승전

통일	연합
0	0
0	7
0	1
0	1
0	1
0	4
0	×
0 :	14

◆세종대 연합간의 준결. 3루에서멋진 슬라이딩 폼을 보인 연합 5번 앤드류·한군. 수비하는 세종 11번은 3루수 알렉스·리.

◆최우수선수상에 빛나는 연합교회 우승투수 이래리군.

6개팀 분전, 치어·리더까지 동원
손에 땀쥔 부모 목쉰 응원

야구대회 총평 조용히 알찬수확 거둔 대회
침례·통일·세종의 모범 분전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는 알찬수확을 거둔 가운데 조용히 막을 내렸다.

하오에 한차례 비가 오겠다는 일기예보에 마음조였으나, 오히려 오후가 되자 흐린 날씨가 개였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야구에는 아주 적절한 날씨였다.

본사주최 최초의 어린이 스포츠행사인 제1회 리틀야구대회는 요란스럽지도, 쓸쓸하지도 않은 적절한 규모의 대회였다.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몇팀이나 나올까, 얼마나 잘 진행될까하고 우려했으나, 6팀이 출전, 아무런 잡음없이 성황리에 끝났다.

프로야구팀을 2개나 갖고있는 캐나다에서, 야구는 최고 인기스포츠의 하나. 세계에서 3번째로 금년도에 프로리그를 창설한 한국에서도 야구의 인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토론토교민 사회에서도 고교 동창야구대회, 한인회주최 야구대회, 바시티야구대회등 어른들의 야구대회는 많이 있었으나, 어린이대회로는 이번이 처음.

어린이야구대회의 의의는 이번대회 진행위원장으로 수고한 박재선씨의 주장처럼 「교육적인 면」에서 찾을수 있다. 야구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히 이기고 지는 스포츠맨쉽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기기위해 수단방법의 가리지 않는다는 식의 불건전한 사고방식이 자칫 어른들에의해 주입되는 불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대회에서는 부정선수 한명없이, 또 심판의 판정에 불복, 감독이나 코치가 심판과 싸우는 추태도 없어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몇몇 부모들이 뛰는 자녀보다 더 흥분, 코치를 제처놓고 작전명령을 하고, 자기자녀가 실수하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꾸짖어 양식있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부모의 자녀사랑이 과잉노출된 실례이다.

참가의 의의를 다시한번 확인해준 팀은 침례교회. 대회규정인 연령12세 미만을 지켜 7세의 어린선수까지 출전, 일찍 예선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수가 폐회식까지 남아있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팀은 세종한글학교. 오샤와에 거주하는 약30가구의 교민들의 전 자녀가 총출동했고, 여자선수들이 많은 팀이기도 했다.

결승까지 올라온 통일팀의 분전도 특기할만하다.

유니폼비용을 아끼기위해 본사가 각팀선수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한 티셔츠뒤에 넘버와 통일마크만 그려넣어 유니폼 대용으로 입고 출전한 통일팀은 김문량(78) 야구협회회장의 손자4명이 중심이 된 팀이다.

"내년에는 정식유니폼도 갖추고 좀 더 알찬 연습으로 우승을 노리겠다"는 김회장의 말대로 내년에 다시한번 기대해 볼 만한 팀이다.

연합교회의 우승은 한마디로 노력의 결실이었다. 감독, 코치까지 일제히 유니폼을 갖추고, 이미 3개월전부터 연습을 거듭해왔다고 한다. 꼬마소녀 응원단까지 갖춘 연합팀은 이상철목사이하 전교인들의 성원속에 결실을 이루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팀이 출전, 문자그대로 어린이들의 체력과 두뇌와 묘기의 재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승민 부장〉

정순철 5년6개월 징역
광주 미문화원 방화등 혐의

(서울5일=연합)서울형사지방법원은 5일 정순철을 광주미문화원방화등 혐의로 5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은 80년 5월 광주에서 있은 대규모 반정부시위에 이어, 12월9일 광주미문화원 방화를 주도한 혐의이다.

형사지법은 또 전 은행직원 정진열(31)씨와, 전 종교단체지도자 김봉진(35)씨에 정순철을 은신시켜준 혐의로 1년 징역형을 내렸다.

한편, 고려대학교 반정부시위의 수모자인 박계동(30)씨는 계엄령위반및 밀출국기도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과 정은 경찰의 수배를 받자 일본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했었다.

여성 소방대원 19명 7월부터근무

(서울3일=연합)한국 최초의 여성소방대원이 7월중순부터 서울소방서에 근무할 19명의 여성대원들은 지난2월 440명의 후보들중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이미 기초훈련을 마쳤다.

무기명 예금 금지 83년7월1일부터

(서울3일-연합)금융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83년7월1일부로 은행예금을 비롯한 모든 금융의 무기명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3일 강경식재무부장관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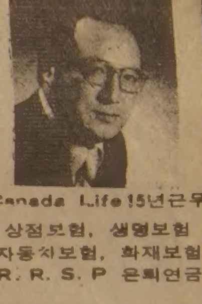
이 발표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의 경우 회사등록번호가 명기되야만 가능하다.

강재무장관은 20세이상자는 3천만원까지, 20세미만자는 7백만원까지 83년6월30일이전 명의변경할 경우 자금의 출처를 불문, 세금이 면제된다.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제2회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금년에도 교민친선 골프대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석을 바라오며 부부동반해서 댄스도 즐겨보십시요.
일 시 : 1982년7월11일(일) 오전11시 정각
장 소 : 곰리(Gomly) 골프장
(1 Mile North of STOUFFVILLE Side Road on Woodbine Avenue)
참가비 : (그린·피, 중국식 디너 포함)
※주류는 맘껏 드십시오(무료)※댄스 순서 있음.
상 품 : GROSS 1·2·3등 NET 1·2·3등
NEAREST HOLE LONGEST DRIVER
HONEST HOLE IN ONE 기타상품
연락처 : 김영규 535-9541 박경윤 921-6397
김성규 757-7828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선착순 55명에 한합니다.
주최 :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후원 : 한인골프협회

여름보너스 스페샬세일
$5.79 믿지 못할 가격!!!

여행자 선물용 포장을 해드림
프랑스향수
NINA RICCI
1개 사시면, 1개 보너스

⊙각종 한약·비타민등 대폭세일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윔블돈 테니스

코너스, 나바로틸로바 우승

전년도챔피온 매켄로, 에버트 물리치고

한물간듯이 보였던 지미·코너스가 8년만에 다시 영국 윔블돈테니스 남자단식 우승컵을 안았다.

이 대회 74년도 우승자였던 코너스는 4일 아침 윔블던시의 센터코트에서 열린 작년도 우승자인 존·매켄로와의 결승에서 윔블돈사상 가장 긴 4시간15분의 혈투끝에 3-6, 6-3, 6-7, 7-6, 6-4로 승리했다.

◆전년도 우승자 존·메켄로를 4시간15분의 혈투끝에 3:2로 물리치고 윔블돈테니스 남자단식 우승컵을 안은 지미·코너스.

코너스의 승리는 1위 상금 $95,500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 이었다. 비온·보그의 대회 불참으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매켄로는 초반에는 작년에 보그에게 보여줬던 강한서브를 보이지 못했다. 한때 4세트부터 서브공격의 위력을 되찾은 매켄로에 코너스는 재치있게 이를받아 넘기며 리드하기 시작했다.

74년도 윔블던챔피온이후, 3번이나 결승에서 물러났던 코너스는 78년도 미국오픈 챔피온이래 한번도 그랜드슬램 챔피온이 되지 못했었다.

〈그랜드슬램(Grandslam): 세계 테니스의 4대 타이틀을 말하는 것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윔블돈), 미국오픈을 일컬음. 야구에서는 4점짜리 만루 홈런을쳤을때, 그랜드슬램이라고 함.〉

한편 3일의 여자단식 결승에서 미티나·나바로틸로바는 전년도 챔피온 크리스·에버트를 6-1, 3-6, 6-2로 눌러 금년도 테니스대회를 휩쓸고 있다.

체코 출신으로 76년에 미국에 망명했던 나바로틸로바는, 금년들어 10타이틀을 참가중 9개 타이틀을 따냈고, 55개 매치중 1매치를 놓쳤을 뿐 54개 매치에서 승리했다.

나바로틸로바는 윔블돈의 승리로 테니스선수의 최고 영광인 그랜드슬램 챔피온에 한발짝 다아갔다. 이미 호주, 프랑스, 영국오픈 챔피온이 된 나바로틸로바는, 오는 9월 미국오픈만 우승하면 그랜드슬램 챔피온이 된다.

이대순 국회문공위원장 토론토대학 내방

토론토대학교 동양학부내 한국학과 후원재단을 시찰차 한국의 이대순의원(문공분과위원장: 전남벌교 출신·민정당)이 6일 토론토를 방문한다.

이위원장은 7일하오2시30분 토론토대학교 햄총장을 총장실로 공식방문하며, 체류중 벳티·스티분슨 온타리오주 문교장관, O.I.S.E. 의 샤피로 디렉터, 온타리오 과학관장들을 방문한다.

오는 13일 저녁8시에는 토론토대학 햄총장댁에서 한글학과 관계자등의 초청 리셉션이 있다.

이위원장은 햄총장의 작년 방한때 만나서 한국학과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혐의 대부분 시인 최기식 신부

(부산5일=연합)최기식신부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된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원주교구의 최신부는 김현장(32)씨및,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부식군·김은숙양을 교구내에 은둔시켰으며, 김현장이 경찰에 수배를받고 있을 동안 현금 50만원을 전네준 사실도 시인했다.

최신부는 또 81년3월부터 82년2월까지 김현장이 전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강좌를 실시해온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단지 학생들이 모여 독서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4일째인 이날 재판은 가족·캐롤릭신부등 1백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았다.

문익주는 탈락 회빅 결승진출

금년도 차이콥스키 경연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던 피아니스트 문익주씨가 결승진출일보전에 탈락했다.

위니펙교민인 문씨는 '준결승에서 몇군데 실수가 있어 크게 기대는 못했었다"고 위니팩의 자택에 전화로 알려왔다.

대회가 열린 모스코바에 캐나다에서 출전한 첼로의 메스톤·회빅은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윤여경씨 80점 우승

런던골프대회 50명 참가

(런던=강상권지국장)금년으로 10년째를 맞는 런던 골프협회(회장 이석범) 주최 한인친선골프대회에서 토론토의 윤여경씨가 80점으로 그로스부문 1등을 차지했다.

그로스는 18개「홀」을 완전히 돌때까지 골프채로 친 총회수이다.

작년대회 그로스 챔피온은 박영철부총영사. 박부총영사는 지난 체육회추최대회에서 한인사상 최초인 69점을친 이후 점수골프에는 불참하고 있다.

이번 런던대회에는 토론토등지서 총50명이참석했다.

◆그로스
◉1등 윤여경(토론토)80
◉2등 김성연(런던)83
◉3등 박상선(런던)83

◆넷
◉1등 장복인(런던)
◉2등 이종문(토론토)
◉3등 김현모(토론토)
◆롱게스트 김현모(토론토)
◆니어리스트 정길수(미시사가)
◆럭키·세븐 강경화(토론토)
◆오네스트 서석주(토론토)
◆장려상 정용주(토론토)

암달러 급등, 830원

거래한산 금융조치탓

(서울3일=연합)미국달러 암시장 시세가 급격히 올라 백달러당 8만3천원까지 올랐다.

2일과 3일 급격히 가치가 뛴것과 아울러 거래가 크게 한산해진 것은 정부가 83년7월부터 무기명은행구좌를 금지시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달러시세는 지난 1일까지 미화 100달러당 79,500원에 거래됐었다.

외환은행이 발표한 공정환율은 100달러당 74,300원(매각)으로 암달러의 마진율이 10%이상으로 검충 뛴 것이다.

5일의 캐나다환율은 $100=576.41원이었다.

세계최대의 2천2백쌍 합동결혼식

◆ 세계최대의 합동결혼식이 1일 뉴욕메디슨·스케아가든에서 문선명통일교주 주례로 2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총2천2백쌍의 합동결혼식은 예정시간보다 약20분늦게 시작했는데 신랑·신부들이 붉은색과 흰색의 카펫을 밟으며 입장했으며 6천명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한편 문선명교주는 세금포탈혐의로 이달말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오른쪽에 문선명씨가, 왼쪽에 부인이 보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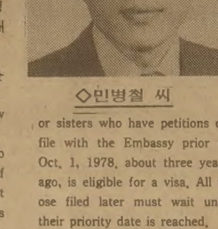
〈한국인을 위한 미국비자 안내〉

미국이민쿼터는 출생지별로, 한국 2만명 비이민비자는 귀국한다는 증명있어야

편집자주:다음글은 본보 생활영어 담당자인 민병철씨가 한국일보 독자를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홀베인 영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본 인터뷰는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등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한 것이나, 이곳 토론토 교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의 이민쿼터제는 신청장소나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지별로 나눈다.

민병철씨는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한국일보등 생활영어 칼럼을 기고해왔다. 민씨는 금년부터 서울 중앙 대학교 외국어연구원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민병철 씨

INFORMATION ON VISAS
○민-Byoung Chul Min
●H-James R. Holbein

○민-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가려면 대개 어떤 분들이 갈수 있읍니까?

What qualifications does a Korean person need to go to the United States as a permanent resident?

●H-There are two ways people may go to the United States as immigrants. The first is that of relatives. An American citizen may file an immigrant visa petition for a husband, wife, parent, child or brother or sister and a permanent resident alien may petition for his wife, her husband or their unmarried children. The other type of imigrants are skilled workers which require a petition to be filed by the prospective employer. In all cases, the petitions are filed with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이민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가족 초청이 되겠읍니다. 미국시민권자는 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또는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가 있고,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읍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모자라는 숙련된 노동자를 장래의 고용주가 초청할 수 있는 경우죠.

어떤 경우든 페티션을 법무부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민-페티션이 신청된후 VISA는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보겠읍니다.

If the petition is filed, how do they obtain a visa?

●H-The Petition is sent to the Embassy and a packet of forms and instructions are sent to the immigrant. All the forms must be completed, a Koean passport must be obtained and the immigrant must follow all the Embassy's instruction. After the immigrant has his passport and documents ready, he sets a visa appointment by contacting the Embassy. The day of the visa appointment is the day the visa is issued in 85% of our cases. The whole process normally takes 3-4 months.

페티션이 미이민국에서 서울 미대사관으로 오게되면 미대사관에서는 필요한 일체서류와 설명서를 이민신청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되고 한국여권이 준비되어야 되며 미대사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신청자가 여권과 모든 서류가 완비된후 미대사관에 신청하면 비자인터뷰날짜를 받게 됩니다. 85%가 비자인터뷰 당일에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리죠.

○민-그러면 시민권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는지요?

What about the brothers and sisters of American Citizens?

●H-They must wait much longer. Right now, any brothers or sisters who have petitions on file with the Embassy prior to Oct. 1, 1978, about three years ago, is eligible for a visa. All those filed later must wait until their priority date is reached.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들은 훨씬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중 약 3년전인 78년10월1일 이전에 대사관에 페티션을 신청한 분들의 비자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민-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가는데 연간 몇명의 인원제한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Is there any numerical limitation for persons seeking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from Korea?

●H-Yes, there is a limit of 20,000 for Korea the same as for all other countries. However, the spouse or parents of the United States Citizens are not subject to limits.

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20,000명으로 숫자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그 제한을 받지않게 됩니다.

○민-한국에 있는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해 보겠읍니다.

How can parents living in Korea visit their permanent reside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H-Through obtaining a nonimmigrant visa. They may qualify by filing an application and showing sufficient ties to Korea such as family, property, jobs, etc., so they will return to Korea after their visit.

비이민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든지 재산, 직장관계로 방문이 끝나면 다시 귀국하겠다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민-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연수여행을 떠나는데 이 학생들이 미국입국비자를 받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Recently a lot of Korean students are going to the States for language courses. Do they have any problems in obtaining visas?

●H--Generally no. They need an approved form I-20 from the college, proof of financial support and proof of their ties to Korea.

일반적으로 별문제가 없읍니다.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 통지서인 I-20 Form하고 재정보증과 한국에 돌아온다는 확약을 갖추시면 되겠읍니다.

○민-미국 입국비자를 발급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전부 영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Does a consul have the authority to approve or not approve visas?

H-Yes, only a consular officer has that authority under U.S.law.

미국법률에 의해서 영사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군요.

○민-대개 어떤 경우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지요?

In what cases do you not approve nonimmigrant(tourist) visas?

●H-Normally those are not approved when the applicant can not prove that they will return to Korea after their visit.

신청자가 한국에 꼭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대개 비자 발급이 안되고 있읍니다.

○민-미국에는 초청해 줄 만한 친척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는 길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A Korean person who doesn't have any immediate in the States, is there any way this person can visit the United States?

●H-Yes, many people travel for business trips, study, as tourists and for conferences, etc.

초청해 줄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고 해서 방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유학, 관광, 회의참석하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읍니다.

○민-마지막으로, 영사의 입장으로 미국가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읍니까?

As a vice-consul at the American Embassy, what would your advice be for a Korean person going to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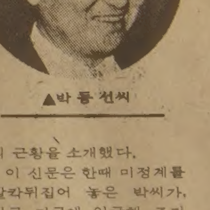
●H-I would suggest that you learn English at least a minimun amount before you travel.

여행하시기 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익혀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朴東宣씨 人氣건재

美入國 옛친구위한 파티에 政界·社交界인사 대거참석

서울서 수퍼마켓 연쇄점 경영 英·도미니카 순회하며사업도



▲박동선씨

〈뉴욕지사〉30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코리아게이트의 장본인인 박동선(47)씨의 근황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때 미정계를 발칵뒤집어 놓은 박씨가, 최근 미국에 입국해 조지타운클럽에서 베푼 파티에는 여전히 많은 미정계·사교계인사가 참석, 그 인기가 건재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6월15일 조지타운클럽에서 옛친구를 위한 파티를 열었었다.

이날 파티에는 미정계와 재계인사 3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석자중에는 그의 걸프렌드였던 탠디·딕킨슨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딕킨슨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박동선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아직도 미국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후, 사람들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고 불평했다.

이날 파티 참석자중에는 미시시피주출신 하원의원 메이빗·보햄씨, 팜비치데일리뉴스의 사교칼럼니스트 가넷·스페켈버그씨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탈세혐의로 호화로운 저택파 고급승용차 2대는 물론 신고다니던 구두와 칫솔까지 IRS에 압류당했다.

그는 81년4월 빈털터리로 워싱턴을 떠났으나, 요즘은 사업관계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워싱턴에서 파티를 베풀고 서울로 돌아간후,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이상 워싱턴에 있는 내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에서 수퍼마켓 연쇄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씨는 서울·런던·도미니카공화국등을 순회하며 사업을 돌보고, 가끔 워싱턴에 들러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정씨농장 채소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농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교포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의 주식인 배추와 무우를저렴한 가격에 특별봉사 하고자 합니다.

소매가격 ● 배추 16¢(Lb당) 50Lb 1BOX에 $8.00
● 무우 20¢(Lb당) 50Lb 1Bag에 $10.00

일시 : 1982년7월7일부터~
판매장소 : 시내 각 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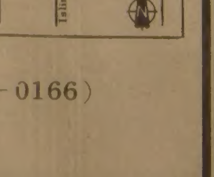
RRI Wainfleet Ont, L0S 1V0
1-899-1154
정씨농장 주인 백

호남향우 야유회

향우 여러분!
어려운 이민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호남향우회에서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향우 여러분 가족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온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7월17일(토) 오전10시
(우천시는 다음주 토요일로 연기)
장소 : BOYD CONSERVATION AREA
(점심은 각자 지참. 단, 음료수는 향우회에서 제공)
전화문의 : 장영대(651-8835) 송남성(271-0166)
이정석(535-2143)



호남향우회 회장 장 영 대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 바바라여사

베이비샤워때는 膳物 주는게 좋고

우습게들릴 이름이면 아이들 경우는 바꿔주도록

美國人이름에도 구두수선공등 괴상한 성많아

○〈문〉 제겐 묘한 고민이 하나 있읍니다. 캐네디언들에게 제 이름을 말할 때면 늘 느끼는 일인데요. 이름을 가르쳐주면 빙그레 웃거나, 어떤 사람은 킥킥거리며 비웃는 것 같아요. 솔그머니 울화가치밀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군요. 그렇다고 영어식 이름을 갖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카보로 김익회〉

●〈답〉 전혀 신경쓰지 마세요.

사람이름을 갖고 놀림을 당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지요. 이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어떤 이름이든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름을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어로 발음할때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이름을 캐네디언 친구들에게 가르칠 방도를 연구할 필요는 있읍니다.

예를들면 한국이름으로 「범」은 영어로 bum(부랑자나 게으름뱅이라는 뜻)으로 들릴가능성이 많지요. 「익회」라는 이름도 「icky」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런일 경우는 이름을 그냥 지키되 발음법만 잘 가르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는 이곳 아이들이 우습게 생각할 이름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짖궂은 아이들이 두고두고 놀리면 어린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쉬우니까요. 그럴땐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명을 이름에 하나쯤 붙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때 엥거(Enger)라는 이름을 「안」으로 바꿔볼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하진 않았읍니다. 한국분들은 제 이름을 두음절 「Bar—bra」로 부르지를 않아요. 바·바·라로 세음절로 나눠서 부르더군요.

캐네디언 친구들이 다소 틀리게 불러도 상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이름에도 성이 괴상한 사람은 많아요. 슈메이커(구두수선공) 쳐치, 블랙·테일러(양복수선공)등 제멋대로 붙은 성(Family name)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미국 최대의 성이란 스미스(Simth)는 대장간주인(Black Smith)에서 나온것이랍니다.

○〈문〉 저는 캐네디언 직장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읍니다. 직장상관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혼파티」에 오도록 초청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게 무슨 관습입니까? 〈오샤와 김〉

●〈답〉 캐나다에서도 이혼기념파티라는 것은 뿌리있는 관습은 아닙니다. 이혼이 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혼이란게 축하할만한 일은 전혀 아니죠. 대게 이혼과정에서 갖가지 고통을 받은 다음, 일이 다 해결될때 허전해지니까 친구들을 불러 격려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파티에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가지 마세요. 그저 「다음엔 좋은 운이왔으면 좋겠다」정도로 인사나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문〉 아파트 이웃에서 「베이비샤워」에 와 달라고 초청을 받았읍니다. 무얼 사주어야 할지 선물고르기가 힘들어 대신에 돈을 주었읍니다. 파티에 가보니 다른이들은 선물을 가져왔기에 좀 당황했읍니다. 〈토론토·준엄마〉

●〈답〉 현금을 주신데 이웃은 감사하고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비샤워는 보통 선물을 주는게 상례입니다. 출산할 아기엄마와 가까운 친구·친척이 모여 어린이 용품을 끌러보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이지요. 장난감·어린이 옷 같은게 흔한 선물입니다. 무엇을 살까 망설여지면 아기싸는 담요를 사주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과 사나이 〈20〉

金聖鍾 작

冷血 ④

"우리관계는 그날밤으로 끝난거예요"

모세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었다. 흰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팬티차림이었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요.』

『왜 만나자는 거예요?』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성질도 급하시군. 자 앉아요.』

『가야해요. 용건을 말하세요.』

그녀는 냉랭이 선채로 말했다.

『용건은 간단해. 당신을 잊을수가 없어서 찾아온 거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우리 관계는 그날 밤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정숙해지셨지?』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벽에 기대섰다. 그의 손이 얼굴을 만지자 그녀는 질겁하여 뿌리쳤다. 곡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저게 바로 당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R빌딩이지?』

과연 R빌딩이 지척에 보였다.

그녀는 달려가 커튼을 쳤다.

『악랄하군요. 요구하는게 뭐예요?』

『당신 육체……』

그녀는 머리를 완강히 저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한번으로 끝났어요. 저는 유부녀예요. 이해해주세요.』

『이해?』

그는 웃었다. 술을 켠 다음 팬티마저 벗어 버렸다. 그녀는 전율했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의 팔이 어깨를 감싸안았다. 그때까지 그녀는 가만 있었다. 그가 입술을 덮치는 순간 그녀는 몸부림 치면서 그를 떼밀었다.

朴男 그림

『손 대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가 안경을 벗었다. 아름다운 눈이었다. [illegible] 허공에 떠있는 눈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다가와 그녀를 덥석 안았다. 그녀는 침대위에 동댕이쳐졌다.

『아, 안 돼요!』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서운 힘으로 내리누르면서 난폭하게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겨나가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녀는 애처로울 정도로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모세는 무자비했다. 브래지어 같은 것은 일일이 벗기려들지도 않았다. 그대로 잡아채자 그것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자 그는 그녀의 옆에 누워 옆구리로 그녀의 오른팔을 짓누른 다음 자신의 왼 팔을 그녀의 목뒤로 돌려 그녀의 왼팔을 움켜잡았다. 이제 그녀는 두 손을 꼼짝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오른쪽 다리로 그녀의 두 다리를 눌렀다. 그렇게 하고나서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그녀를 만지기 시작했다. 교묘하게 얽어맨 바람에 그녀는 꼼짝 할수가 없었다. 옷이 허물을 벗듯 벗겨져 내려가는 데도 그녀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입뿐이었다.

◆1982년도 미스·CHIN 비키니에 선발된 토론토의 이바·도믹양. 3일 익지비션공원에서 거행된 CHIN방송 주최 올슨·인터내셔널·픽크닉에서 최고미녀로 뽑힌 이바양은 별명 부·부(Boo Boo)라고. 모델로 일하고 있는 부·부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것이 꿈.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광고주를 찾습니다! 연락처 : 533~2361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410〉

글·高羽榮·그림

빅·세븐 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일본음식 전문점

호 심

제일 큰 고층빌딩내 「호심」에서 한번 시식하십시오.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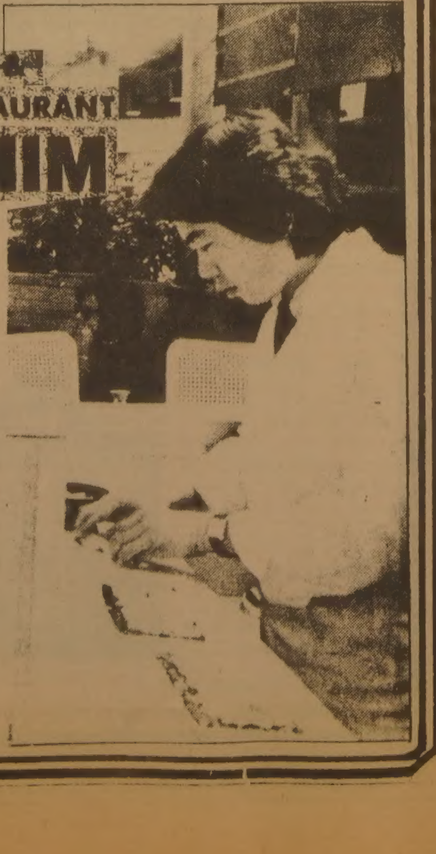
*예 :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 시	3.75~9.95
	기 타	

* 새로 쓰시바 신설
* FAST TAKE OUT SERVICE
* 단체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 단체연회 특별봉사
* 주문 환영합니다.

—저녁6시 이후에는 도로변 주차 가능.
—저렴한 파킹장 : 평일 오후6시이후 Flat $1.50, 토요일 Flat $1.50

주류판매 개시
NOW FULLY 술LICENCED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엽니다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P. O. BOX 329 (100 King st. at Bay) ☎ : 368—0686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企業횡포 막는다

政府、소비자保護法 시행령 마련

제조·都小賣업소등에 보상專擔부서 義務化

政府에 분쟁조정 機構설치

기업의 횡포에 당하기만하던 소비자가 법의보호를 받게되었다。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으나 法의시행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마련되지않아 보류되어왔는데 1일 경제기획원이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기업의 횡포에 대항할수 있게되었다。

경제기획원이 1일 발표한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자、도·소매업자、전기·가스업자및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보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5조) 이와아울러 중앙행정기관、특별시、직할시、각도등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사업자및 해당사업자가 설치해야하는 전담기구의 규모 (부、과、혹은계)는 경제기획원이 추후 설치될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구체적 기준을 발표한다。또한 정부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는 소비자의 피해보상、불량상품의 교환、환불등 분쟁을 조정한다。

시행령 (안) 은 주요 소비자보호시책을 심의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17조)하고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업무활동을 지원함과아울러 소비자보호운동의 지도자양성、소비자 조합의 교육및공동구판사업활동을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있다 (9조)。

특히 중앙행정 기관、서울특별시、직할시및 各道에는 소비자를위한 물품및 용역의 시험과검사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보호 전담검사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12조) 20인 이내로구성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농수산、상공、동자、보사、과기처장관등 7명의 관계부처위원과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안전、물품의표시와 광고에 대한사항、공정거래에관한 사항등 주요사항을 식품위생법、약사법、공산품품질관리법、공정거래법등특별법에 위임하고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는많은 제약이있다。

경제기획원은 소비자 보호법시행령 (안) 을 법제처에 회부、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하고 9월중에는 경제기획원이 종합시책을수립、관련부처에 시달、내년부터는 해당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시행에옮기도록할방침이다。

美ABC 방송社長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일 하오 청와대에서 미국ABC방송의 엘턴·룰사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이자리에는 李元洪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ABC방송스포츠부사장 존·마틴씨가 배석했다。

日閣僚와 연쇄會談

李外務 訪美귀로 經協문제등 논의

李範錫외무장관은 訪美일정을 끝내고 3일 일본에 도착、5일 사꾸라우찌 (櫻內義雄) 외상과 하오에 걸쳐 2차례 韓日외상회담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李장관은 6일이나 7일 스즈끼 (鈴木善幸) 수상을예방하는 외에 와따나베 (渡邊美智雄) 大藏相、아베 (阿倍晋太郎) 通産相、고오모또 (河本敏夫) 경제기획청장관등과도 만나 經協타결을 위한 日本측의 성의를 촉구할 예정이다。李장관은 또 기시 (岸信介) 다나까 (田中角榮) 미끼 (三木武夫) 후꾸다 (福田赳夫) 등 前職수상들도 예방한후 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防産品 수출에 美 호의적反應

李外務·스토슬要談

【워싱턴1日=李文熙특파원】미국을 방문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은 30일(한국시간1일상오1시)월터·스토슬국무차관과만나 방위산업생산품의 수출、쌀도입、對外군사판매차관(FMS)의 조건완화、어업문제등 현안들로부터 남북대화、美·北傀관계등에 이르기까지 양국공통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관리12명이 참석한 2시간동안의 오찬을 겸한 실무회의에서 李외무장관과 스토슬 국무차관은 현세계정세와 전반적인 지역문제、특히 한반도주변문제를 검토하고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한편 양국이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알려졌다。

李장관은 회담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실제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밝히기를 꺼렸으며 앞으로 있을 한일외상회담에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9일 黨政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9일 저녁 民正黨당사에서 金相浹 내각총리서리와 첫黨政정책조정회의를 열고 黨政협조문제등을 협의키로했다。

李戴灐 民正黨대표위원은 1일『이번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는최근의경제활성화정책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時局에 관해서도폭넓은의견교환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

輸出부진 6월중18億弗

올들어 처음 월간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1일 상공부가 집계한 6월중 수출실적은 18억6천1백만달러로 작년동기에 비해 3·6%나 줄어드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그러나 6월말까지의 총수출실적은 1백3억5천5백만달러로 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 월별수출실적은 지난 1월의 3·6%를비롯 2월에 11·6% 3월에 5·6% 4월0·2% 5월에 7·5%등 모두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6월들어 처음 감소현상이 나타난것이다。

한편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6월중 13억7천6백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4%가 줄어들었으며 올들어서는 6월까지 총86억2천만달러로 7·9%가 줄어든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작년9월이후 계속 전년동기보다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며 5월부터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형편이다。

日外相 9월초訪韓

【東京30日=聯】사꾸라우찌 (櫻內義雄) 일본외상은 오는9월초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보도됐다。

經濟침체脫皮시급 金總理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1일『정치분야만활성화돼야하는게아니고 모든분야가 다같이 활성화돼야하며、우선경제가 沈滯에서 벗어나도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金총리서리는 이날하오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6·28경제활성화조치는 자본주의의룰에 맞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하고『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는것이란 기업인이나 국민들이모두 의욕을 갖고활동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北傀간첩 3명검거

西獨광부로就業 위장귀순

스웨덴留學가장 北傀접촉

日本우회침투 17년간暗躍

국가안전기획부는 1일 서독광부로 취업중 북괴공작원에 포섭되어 간첩교육을받은후 위장귀순한 간첩金振毛(43·서울東大門區 面牧4洞583의80)와 해외유학을가장、출국하여 스웨덴주재 北傀공관에 접근 포섭 된후 위장자수한 간첩 金東賢(25·大邱市東區芳村洞988의21)、서울을 거점으로 17년간 암약해온 일본우회침투간첩 金洋洙(46·서울恩平區龜山洞20의26)등 3개간첩망3명을 검거、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안기부는 구속된 간첩들이 해외취업、유학등을 목적으로 출국、일시적에 포섭되어 입북、북괴의사 신분으로 위장하여 간첩교육을 받은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망명형식으로 취득한후 국내 귀순을 가장、침투한 것과 현지 북괴공관등 비밀 아지트에서 단기 간첩교육을 받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 자비귀국등의 합법구실로 위장、침투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위장귀순한 金振毛=서독취업광부로 출국한후 방탕한 생활을 해오다 77년9월 북괴공작원 곽기석(50)과 4회에 걸쳐 접촉、포섭된후 지난해 10월12일 입북、북괴공작지도원에게 인계되어 노동당에 입당、平壤寺洞초대소에서 24일동안 암호서신 음어사용법등 간첩 밀봉교육을 받았다。

金은 이어 북괴공작원으로부터『북조선 내과의사로 가장、서독에 망명、영주권을 획득한 다음 한국에 북괴망명의사로 귀순、침투하라』는 등의 지령과 공작금 미화 1만달러를 받아 각본대로 서독에 망명했다。

그후 金은 북괴 공작책으로부터『남조선 의사협회에 침투、지하당을 조직하라』는지령과 공작금5천마르크(한화 1백50만원)를 받고 지난 2월18일 터키주재 우리나라공관에 찾아가 위장귀순、서독정부가 발행한 망명승인서결혼등록서등 위장문건과 소아질환 치료방법등 외국의학서적을 휴대하고 국내에 침투한후 국가보상금까지 타고 간첩행위를 기도하는등 교활한 수법을 썼다。

◇金東賢=평소 불온서적탐독 북괴방송청취등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된자로서 81년9월4일 서독유학을 빙자하여 출국한후 지난4월27일 스웨덴주재 북괴공관을비밀리에 방문、북괴공작원 왕송림(32)등에게 자신의 출신성분을 설명한후 자진하여입북주선을 요청、북괴에 포섭되었다。

이튿날 북괴공관을 재방문한 金은 북괴공작원들로부터『스웨덴 정부와 南부대사관간의 외교분쟁을 유발한후 입북해야 한다』는등의 지령을 받고 4월30일 상오11시 한국대사관에 찾아가『북한대사관을 방문、入北하려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곳에 자수하러 왔다』고 위장자수를 했다。

이어 金은 신변위협을 이유로 숨겨줄것을 요구、우리 공관원이 부근에 있는 스타·호텔에 은신처를 마련、보호해 주었다가 5월3일 스웨덴외사경찰청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북괴의 지령대로 스타·호텔의 선낭을 내보이면서『나를 구해주시오。나는 한국대사관에 의해 이곳에서 3일동안 불법억류당했읍니다』라고 고함을 쳐 스웨덴당국과 한국대사관의 외교분쟁을 유발하려고 획책했다。

金은 스웨덴경찰이 남한으로의 귀국을 계속 종용하자 망명이 실패한것으로 판단해 북괴의유사시 지령대로 자수를 가장、귀국한후 북괴의 재접선지령에 따라 장기 매복하면서 간첩활동을 자행하려고 기도해왔다。

◇金洋洙(46·B해운무역부장)=2차에걸쳐 밀항도일、65년12월 북괴재일공작지도원 金承建(52)등에게 포섭된후 그들로부터『귀국후 동조세력을 규합、장기매복했다가 사회혼란시 유언비어를 유포、민심을 교란시킬것、정치·경제·사회·군사등각종정보를 수집、보고할것』등의 공작지령을 받고 65년12월 자비귀국자로 위장、국내에 잠입했다。

잠입한 金은 검문검색을피하기위해 회사의 동료여직원등을 애인으로 대동、관광을 가장하여 수도권방어시설및 경계실태、주요국가시설등의 위치와 구조、전방군사시설등을 탐지、30여회에걸쳐 미리 약정된 음어서신으로 재일연락거점에 보고했다。

◇당부의말

안기부는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최근 북괴는 모험주의적인 金正日의 공식등장과 함께 요인암살·납치·파괴공작등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모처럼 해외여행 또는 해외취업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대공경각심을 더욱 높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첩金振毛

◇간첩金東賢

◇간첩金洋洙

地下鐵공사장 또崩壞

★기사6면

「神秘」 드러낸 百濟토기

도굴당하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5、6세기께 백제고분이 1일 淸州市新鳳洞山12에서 忠北大박물관 (관장 李乾鳳) 팀에 의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이무덤은 비탈진 산중턱을 L字모양으로 2m가량 내려판뒤 동서5m、남북6m의 규모로 돌을포개 만들어놓은 積石橫穴式石室墳으로 봉분이 떨어져나가 1천5백여년동안 도굴을 당하지 않았었다。학계는 武寧王陵보다 규모는 작지만 처녀분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미루어 백제의 신비를 밝혀줄 유물을 수두룩하게 발굴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사진은 이근처 고분에서 발굴된 백제토기〉【淸州=李忠雨·李基龍기자】

社會漫評

언제까지···

地平線

지난 주초、서울의 「2층다리」盤浦대교가「1층」만 만들어졌을때 보도가 있었다。그 기사를 보고、조금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다。그만한 공사를하면서 交通量조사가 없었던 것일까(6월29일字本欄)。다음날 출근길 차속에서 들은 라디오는、그제사 대교의 交通量을 보름동안 조사한다는소식을 전하고있었다。▼우리는종종「시행착오」란 말을 듣는다。그 원인을「주먹구구」라고 한다。앞을 재지않고 일을 벌였더니、잘못된 구석이 나오더라는 뻔한 얘기다。이 때 잘못된 구석을 고치면 일이完美할듯 싶지만、사실은 일을 두번하는 번거로움이있고、낭비가 생기고···해서、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만 못한 경우까지 생긴다。어린이들의 학습은「시행착오」에 맡겨 족할지 모르나、어른들의「시행착오」는 만만찮은 사회적 손실을 빚는다。▼지금 서울에서는 택시업자와 택시기사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月給制실시에 따른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노조측에서는 실력행사를 마다 않을 형세라고한다。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교통행정당국은 택시의 운행원가와 운임수입을 조사키로 했다고 한다。정말 이상한 일이다。그만한 셈도없이 月給制의 정책결정을 내렸더란말인가。그러니、노사간 月給制 名分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말썽이 날수밖에 없다。▼名分에 이견이 없으면서 말썽이 났다는 점은 醫藥분규도 같다。경찰까지 나서서 겨우 실력행사를 회피한 이 분규는 데드 라인을 앞두고 가까스로 어떤「합의」에 이른듯이 전한다。보사부 방침은 우선「시행」해 보고「착오」가 있으면 고친다는얘기다。역시 이상한 일이다。벌써 1년간의 시범사업 실적이 있는데、일부터 설정했던 그「시행착오」기간을 보건행정은 눈감고 지나쳤던 것일까。▼무슨 일이든、일을 꾸미자면 철저한 예비조사와 정확한 예측을 앞세워야한다。盤浦의 交通量조사、택시의 원가계산、제2종 의료보험의 시범사업등은 그를 위한방편이다。그러나 근래의 말썽들은 그런 예비와 예측이 없었거나、소홀했음을 드러 내고있다。「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말썽은 거듭되게마련이다。아쉬운 것은 행정의 名分이 아니라、그 名分을 제대로 살리는 정책―예비와 예측에 근거한 행정의 합리성인것 같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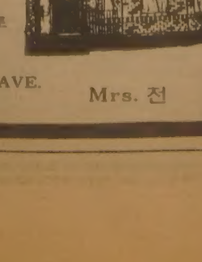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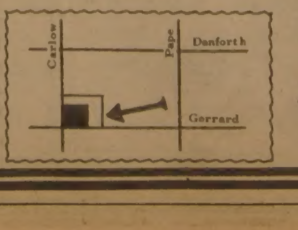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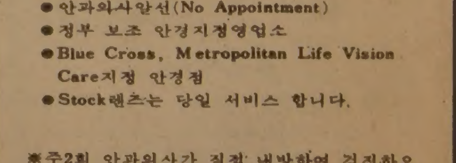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
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
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꽃(화초)도매상
◎저렴한 가격
◎철저한 신용
※전화는 오후1시 이후 요망.
437 Carlaw Ave.
☎: 465-8167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海外나들이 쉬워진다

——旅券발급 지방移管

節次등 대폭 간소화

海外나들이가 점차 쉬워지고 旅券발급도 간소화되고있다. 정부의 국민해외여행자유화 방침에따라 1일부터는 외국에 체류하는 「아는사람」(親知)이 旅費와 滯在費를 부담한다는 조건(公證이 필요함)이면 초청장 하나만으로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3等親이내 血族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방문목적의 해외여행이 가능했으나 이제 門戶가 크게 개방된 셈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50세 이상이면 초청장이 필요없는 관광여행도 할수있게되며 80년대 중반쯤에는 연령제한마저 철폐되어 여비만있으면 누구라도 외국에 갈수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내년부터는 旅券발급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관서에 위임키로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여권발급업무 지방委任내용에 따르면 지방주민들은 여권신청을 외무부 여권과에 [illegible] 住居地의 市道에 [illegible] 缺格사유 [illegible] 旅券을 발급받을수있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의 접수와 交付는 지방에서도 해왔으나 심사업무는 외무부 여권과에서만 가능했다.

濟州는 74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餘他 지역은 작년부터 市道廳에서 여권서류의 접수와 교부를 해왔다. 그러나 신청서류의 記載사항이 不分明하거나 내용의 불충분으로 외무부여권과에서 面談을 요청할때는 上京해야 한다는등 여러가지 불편한점이있어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직접 외무부여권과로 접수시켜온 실정이었다.

그예로 81년도 서울을제외한 지방거주자들에게 발급된 旅券數는 14만2천7백88건인데 그중 지방市道廳을경유하여 처리된 건수는 전체의 1.48%인 2천1백23건에 불과했던 점을들수있다.

따라서 여권발급의 지방위임은 지방민들에게 시간적, 또는 경제적인 혜택을 줄뿐만아니라 업무의電算化로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지방에서 여권을신청할경우 서류가 오가는시간을포함 15일정도 걸리지만 내년부터는 10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한사람이 商用·文化·親知방문등 목적에 따라 몇가지 旅券을 동시에 소지하는것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한글)을 電算機에 조회할경우 당사자의 과거 여권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2개이상의 여권을 갖는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身元조회」때문인것으로 지적돼 왔으나 업무의 地方위임에 발맞춰 신원조회도 電算化를 추진중이다.

현재 신원조회기간은 서울은 5일, 지방은 7~8일을 기준으로 삼고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늦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1단계로 금년7월부터 行政制裁者(缺格者) 확인업무를 電算化한후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완전電算化를 추진중이다.

행정制裁者의 경우 현재 외무부에서 2천여명이나 되는 명단을 旅券하나마다 일일이 체크하는 手作業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명단을 컴퓨터에 넣게되면 경찰신원조회만으로 適否가 나타나기 때문에 2중작업이 필요없고 외무부의 업무도 크게 輕減될수있다

또한 신원조회업무가 완전 전산화될경우에는 신원조회기간이 당일또는 이틀정도밖에 걸리지않아 여권발급기간은 3~4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치안본부는 앞으로 신원조회를 여권발급 업무와 구분하여 출국직전 공항또는 港灣에서 컴퓨터체크만으로 처리하는 네거티브·시스팀을 도입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조회 電算化면 10일내 發給

80년중반엔 연령제한폐지 旅費만있으면 가능
專門要員 확보등 한해 경비 3~4억원이 필요

宋學源외무부영사교민국장은『여권발급업무의 지방분산은 민원인에대한 편의제공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방分權化로 언젠가 실시될 地自制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면서『電算化등 준비만 철저하다면 각市및 區廳에서도 여권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旅券발급統計 (81·6~82, 5)

목　적	發給數
商　用	82,921
就　業	148,234
同居·방문	39,398
문　화	38,396
移　民	38,396
官用·외교관	11,260
計	378,728

그러나 여권업무의 지방移管에는 人力확보와 담당자들의 여권업무 교육이라는 문제점이 따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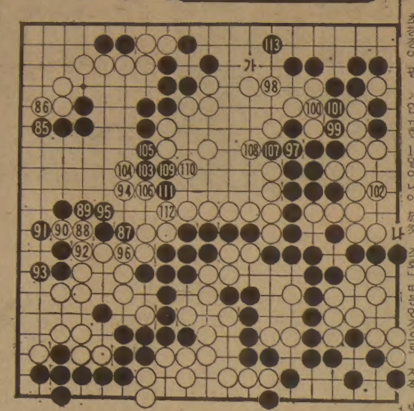
외무부는 市道廳의 담당요원들이 최소한 10명씩은 필요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요원은 지방공무원으로 補하되 이들의 급여는 외무부예산으로 지출할 구상이다. 또한 여권업무에 관한 교육은 오는12월에 2週정도 실시하고 외무부 여권과에서 수시로 행정지도요원을 지방으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

宋국장은『여권업무가 간소화됐다는 美日 臺灣등에서도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보통 10일정도는 걸린다』면서『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0일이내에 여권이 발급되면 이것은 획기적인일』이라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賃借컴퓨터 시설비와 관련공무원의 給與및 기타부수경비도 年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李在武기자】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第12譜 185~213 (각5시간·黑덤5집반)

白(名　人)曺 薰 鉉〈1勝〉
黑(挑戰者)徐 奉 洙〈1敗〉

전보에서 名人은 중앙을 제법토실하게 확보하여 대세를 만회했다. 그러나 아직도 黑이 유망해보여서고전은 여전하다.

대마상전으로 일거에 재역전을꾀할곳도없고 때도늦다. 강수로―그것도 최강의 수로 끝내기승부를 해야한다. 그러면서 敵失을 포착하는 길밖에 없다.

과연, 黑85 白86의 수순을거쳐 黑87로 들여다보았을때 名人의 최강수가 터져졌다. 87에 대하여 순순히 白96에 받아주면 黑94로 뛰게되어 좌측黑집이 크게 굳어진다. 그러매 白88이하94. 실은 검토실에서도 진작부터 보

名人, 勝機잡아

고있었던 수단이지만 막상 두고보니 白88로 96, 黑94의경우에 비하여 실리의 차이가 너무도 컸다.

그리고 마침내 名人이 고대하던 승리의 찬스는 黑97이란 결정적패착에서 생겨났다. 이수는 직접 黑「간」에 붙여서 상변을 건너가두어야 승패불명이었던 것이다. 白98로 늘어둔뒤에 黑113은 일단 굴복을 당한꼴이고 설사 좌우를 연결했자 별것이 아니다.

또 더욱 黑101은 白102를 강요하여 뒷날「선수빈」을 권리로남긴 수단이지만 실상은 이수로 우변을 「나」에 밀고들어가서 白101로이어가제할 찬스였다고 한다.

도전자가 계산착오를 범한 원인은 알길이 없으나 중요한마당에서 연속 두번이나 실수를 해서는 승리의여신에게 외면을 당할밖에 없다.

소련葬禮式 이모저모

回敎式·氷葬등 10여가지

소련의 장례식은 인종과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모스크바의 평범한 장례식, 그루지아지방의 사치스런 장례식, 리투아니아지방의 가톨릭식, 중앙아시아의 회교식, 그리고 시베리아의 빙장(氷葬)등 10여가지에 이른다.

모스크바의 장례식을 한예로 들어보면―. 1대의 낡은 회색버스가 장지에 멈추면 50명가량의 조객들이 슬픈 표정으로 버스에서 천천히 내린다. 운전사와 조수가 관을 꺼내 묘구덩이 옆에 내려놓는다.

관뚜껑을 열고 가족과 조객들은 종이로만든 조화로시체를 덮는다. 생화는 너무비싸 쓸수가없다. 생화로 장식을 하려면 교사의 한달봉급에 해당하는 1백20루블정도가 든다.

그러나 모스크바 특별공동묘지에는 묘지를 더이상 만들자리가 별로 남아있지않기 때문에 당국은 화장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조촐한 장례식이 끝나면 미망인은 가까운친지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까지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고있었을경우 장례비용은 소속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루지아지방의 장례식은 다소 환상적인 면이있다. 묘지와 장례식은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이탈리아식 취미를 살린것이 많다.

이같은 현상은 종종 소련언론의 비난거리가 되기도하지만 그루지아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바꾸어놓는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나 죽음이나 모두 화려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정치국원등 권력층을 위해 마련된 이 그루지아의 공동묘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람이 허용되지않는다.

시베리아에서의 죽음은 얼음을 의미한다. 1년중 8개월은 얼음으로 뒤덮이는 황량하고 추운 광야의 여기저기에 공동 묘지가 산재해 있다.

간혹 두꺼운 눈을 들어내고 장사지내는 경우도있으나 1~2백㎝의 두께로 얼어붙은 강철처럼 단단한 땅을 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대개의 해결책은 화장이다.

【모스크바=AP】

流星의 賊 <42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㉑

그믐날 밤엔 자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그 관례가아니라도 전쟁 터에 있는 마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밤 삼교대(三交代)하기로 한 보초선을 엄밀히 하고 상하(上下) 골고루 제야(除夜)의 연을베풀기로 한다.

막사 마다에 관솔불을 달아 광교산 홍계남의 본진은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었다.

『이제 임진의 해가 가는 것이다. 일호(一壺)의 탁주에 모든 시름을 풀어라! 새해에 또한 새해의 싸움이 있다』

홍계남의 배하(配下)들에게 내린 훈시였다. 기름보다는 술통이 많은 신상(身上)들이지만 섣달 그믐밤엔 한(恨)이 흥(興)으로 변하는 감상이 있기도 한 것이다.

계남의 막사에 모인 면면(面面)은 조인식을 비롯하여 신불, 원황, 이준호, 송치문, 그리고 심수명의 막료들이었다. 술이 한 순배 돈 후 계남의 말이있었다.

『우리 군사들 가운데 전사한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기록을 맡아 있는 송지문이 명부를 펴놓고 이름을 밝혔다. 무려 삼십칠명의 전사자였다. 일동 정연히 머리를 숙여 무념(無念)의 곡(哭)을 했다.

『오호라, 불원지영(不遠之營)이여 그들의 유업을 보람 있게 할 자들은 오직 살아있는 우리들이니라』

하고 계남은 그들의 고향을 명념해서 후일 살뜰히 해 크게 현창하도록 일렀다.

계남은 조인식을 시켜 현재의 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추려 파악하기로 했다. 조인식의 보고가 있었다.

『평안성은 아직 소서행장의 수중에 있으나 명나라의 동정군과 아군이 합세하여 명춘을 기하여 이를 탈환할 기세에 있고…』

하여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순으로 그 전세와 전황을 들며 이런―

『적은 병력의 분산이 불리하다고 보고 곳곳에 대군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밟은 손실도 엄청나서 점점 전의를 잃어가는것 같으며 병졸 사이엔 염전기분(厭戰氣分)이 퍼져 있는것 같습니다. 기필 명년엔 왜병을 소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계남은 이어 신불에게 부왜반도(附倭叛徒)의 상황을 물었다.

『부왜반도의 수는 이를 확실히 파악 할 수 없으나 한성에 가장 많아 수 백명을 헤아릴 지경입니다. 한성의 역도 가운데의 두목은 박수영(朴守英)이란 자이며, 이 자는 전에 예빈사(禮賓寺) 서원(書員)이었던 자로서 그 행패가 가장 심한 놈입니다. 수원에서의 두목은 이원용, 죽산·용인·과천 등지의 부왜반도는 우리가 이 잡듯 해 놓았으니 후환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불은

『적을 치기에도 영일이 없는 판국에 동족가운데 저런 이 생겨 이를 쳐야할 판이니 실로 앙천통곡할 심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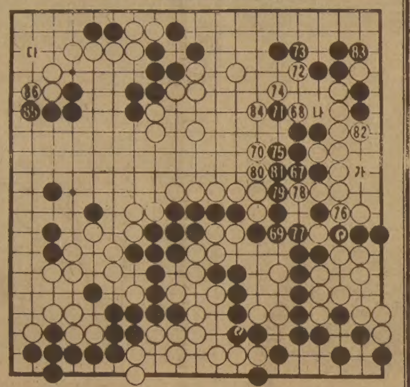
이라고 덧붙였다.

계남은

『서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견적필살(見敵必殺)로 분신하다가 먼 훗날 슬퍼하자』

며 다시 순배를 돌렸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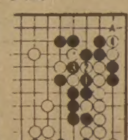
第2局 第11譜 [illegible] (각5시간·黑덤5집반)

白(名　人)曺 薰 鉉〈1勝〉
黑(挑戰者)徐 奉 洙〈1敗〉

黑67로 따이올때 도전자는 얼굴그늘이 잡기를 띠고 名人은 양미간을 한껏 찌푸렸다. 자, 우변白을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설마 죽지는않겠지만 당연히 그댓가는 지불해야된다. 이것이 절박한문제인데 名人은 나머지시간이 10여분밖에 안된다. 이에반하여 도전자는 2시간15분이나 남아있다.

여기서 우변을 살리려면 간단하다. 白76과 82를 선수하고 白「간」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名人은 교묘한수법을 발휘하여 또다시 검토실기사들을 감탄케했다. 白68이하 72, 74의 수순을 거쳐 84까지로 중앙집을 확보했던 것이다.

[illegible] 名人의 手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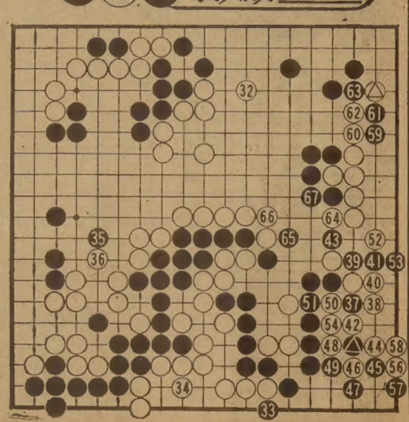


프로기사들은 이 먼것을「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아마추어눈에는 거의鬼技에 가깝게 보이는대목이었다.

다만 궁금한일은 黑75로 왜「나」자리를 제고하지 않았는가 하는일인데 이에대한 해답은 趙8단이 제시한 참고도. 『黑1, 3은 白4로 미는수가 성립한다. 黑은「A」의곳을 막을수가 없어서 큰일이 난다』

도전자는 일이여의치 않게되자 저도모르게 손입맛을 다시더니 좌상귀쪽으로 방향을 돌려 黑85를 힘차게찍어놓는다. 이제와선 최대의곳이다. 白86은당연. 이수를 손뺐다가 黑「다」의 침입을 성공시켜주면 이역시 큰일이다. 【一凡】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第10譜 132~167 (각5시간·黑5집반)

白(名　人)曺 薰 鉉〈1勝〉
黑(挑戰者)徐 奉 洙〈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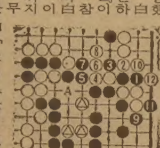
白32로서 형세가 완전히역전되자 검토실기사들은 名人의승리를 확인하고 모두들 자리를 뜨려했다.

그런데 우변을黑37로 막고 白38이 순간 다시 판을둘러싸며 눈이휘둥그래졌다. 『어쩌면 재역전?』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는가운데 黑41로된데서 名人의손길이 딱멎었다. 그리고 20분만에 白42.

이동안 주고받은 의견을 정리하면『白38은 패착이될만한 과수. 의당 40자리에 내려선다음 58의곳까지달리는 큰끝내기를 보아야했고 또 그래서 승리는부동의것』이었다고 한다.

당장 黑39의준엄한수가 터져 문제

右邊에 大異變



가 발생했는데 白42에 관하여는 이수로 참고도의 白2면 이하 12까지 일단 무사하지만 白「A」의 수단이 없어져 △표 3점을 고스란히 죽여서는 실리의 차가 크다』며 실전의 白42를 어쩔수없는임시변통으로 인정하고있었다.

名人은 안간힘으로 白58까지 안정하면서 우하귀黑집을 삭감했다. 그러나 黑53까지 우변白집이 크게 깨졌을 뿐아니라 黑59이하 63까지 △표한점을 돌기고서 우변白대마는 도망자신세가 되었다. 대세는 일순에 혼돈상태. 名人은 마침내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55…▲ 【一凡】

流星의 賊 最終回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㉒

화제가 명년의 전세로 번졌을 때 좌중은 담론풍발(談論風發)했다.

그 가운데 관군과 의병 사이에 있는 알력을 걱정하는 얘기도 있었고 현재의 지휘계통은 승산이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모두들의 의견이 수성전(守城戰), 진지전(陣地戰)은 불가하고 유격전(遊擊戰)만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데 합쳐졌다. 모든 군대를 유격군(遊擊軍)으로 편성해서 신출귀몰하는 방식으로 적을 괴롭히면 금기야 적은 지쳐서 도망을 칠 것이란 결론이었다.

『그런데 모든장수가 유격전을 싫어하니 알고도 모를 일이다』

하고 신불은 유격전 외엔 별로 승리한 적이 없다는 예를 들고 권율장군의 행주산성작전을 비판했다. 이때 계남이 말했다.

『유격전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도 수성전, 진지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적의 대군을 섬이나 진지에 묶어 두어야 하거든. 권율장군의 행주산성작전은 훌륭해. 적의 대군이 행주산성에 주목하고있으니까 그 틈에 우리의 유격전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계남도 수성전의 전과를 부인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유격전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 한편에서 수성전법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장수들이 공성(攻城)과 수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공적부에 기재되기 때문이었다。유격전에 있어선 전과(戰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탓으로 공적부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종전의 예였다.

홍계남 자신의 경우가 그러했다。수십의 전투에 연전연승 했는데도 공성과 진지전 이외의 승전은 송두리째 공적부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기록에 조차도 누락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홍계남이 아니다。담론풍발한 좌중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들이켜며 주마등과 같은 회상 속에 젖었다。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일, 충주, 대탄, 광주를 헤매던 일,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사지(死地)를 피한 무수한 전투…。

이숙랑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부인 박씨의 얼굴도, 어머니의 얼굴도。

(아, 어머니)

생각했을 때 목이 메었다。

(어머니의 오직 하나의 아들이 섣달 그믐의밤에 어머니를 모시질 못하고…)

나라가 편해야 모두가 편할 것이었다。효도를 다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계남이 순배를 돌리며 말했다。

『내 시 한수 지었소』

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山寨今夜軍不眠(산채금야군불면)
兵心思母轉凄然(병심사모전처연)
山河亂離亘千里(산하난마긍천리)
何日征倭期安民(하일정왜기안민)」

―산채의 오늘밤, 군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머니를 그리는 병사의 마음은 처량하도다。산하는 난마처럼 헝클어져 천리에 뻗었는데 언제 왜놈을 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날이 있을까。【끝】

後記＝史實을 섭렵하여 시대사정 속에서 홍계남을 浮刻시키려다 보니 방대한 지면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流星의 賊」는 壬辰年의 그믐과 더불어 여기서 끝마치고 남은 부분은 책의 형태로서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옹달 ㉞

『오빠 그 가게서 높아?』

『높을 전 없어도 사장님이 제일 믿는 기술자지』

『오빠 찾아갔을때 사장님 봤는데 무서운 사람 같아서』

『무섭긴』

『날 여간 못마땅해하는 것 같던데』

『자기가 데리고있는 직원한테 여자가 생기는 걸 주인들은 다들 싫어하게 돼있어。더군다나 나는 주인이 아무리 못마땅해해도 싼 놈이니까』

『전 또 왜?』

『춘자가 어느만큼 나에대해 알아내다웠는진 모르지만 지금독신인 건 확실해。그렇지만 몇번 여자관계때문에 신세 조질뻔 한 일이 있었고 살림이라는걸 차려본 적도 두번이나 돼。지금 내가 빈털터리인 것도 순전히 여자 잘못만난 때문이라고 다들생각하고 나도 동감이야。그러니 네가 굳게 보였을리가 없지。순전히 내 탓이지 사장님 나무랄거 없어』

『오빤 그런 얘길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가 있어。너무 뻔뻔스러운것 같아』

실상 오목이는 일환이의 그런 뻔뻔함에 분개하거나 놀란 게 아니었다。차라리 부러워하고있는지도 몰랐다。

『날 너무 나무라지마。널 만나려가다가 진창에 몇번 빠졌을 뿐이라는 정도로생각해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널 만난 것만으로 벌써 진창을 말끔히 씻어낸 것 같다면 내가 너무 염치 없나?』

그의 얼굴에 소년처럼 싱그러운 동경이 서렸다。오목이는 그를 차마 직시할수가 없어 얼른 눈을 내리깔고 숟깔을 놓았다。

인재야말로 일환이를 만나러 가다가 헛디딘 진창이었으면…。그러나 아직도 인재는 백마를 탄 왕자처럼 멋있고 일환이는 춘자같은 애가 장난으로 뽀뽀하는 일에서조차 재쳐놓은 못생기고 매력없는 남자였다。

『자아, 서두르자』

도대체 서두르란 소리가 몇 번째지 몰랐다。그녀는 서둘러서 시작하고자하는 생활의 신산스러움에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일방적으로 그가 일나가서 단도리라는걸 해놓고 나올동안 오목이가 할 일과 다시 만날 장소를 일러주고 총총히 가버렸다。오목이 보기에 그는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서두르는 것도 같았고 뭔가 몹시 초조해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것도 같았다。

오목이는 그가 하란는대로 일단 춘자네로 돌아갔다。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짐을 쌌다。

『잘 됐다。언니』

『잘 되고 못되곤 두고 봐야지』

『하긴 언니가 아까와。그 뻐드렁니가 땡잡아도 분수가 있지』

『이제 뻐드렁니, 뻐드렁니 하지마。듣기싫어』

『벌써 역성이야。하긴 하룻밤을자도 만리성을 쌓으랬으니까。언니 참 그뻐드렁니가 처음이유? 남자경험 처음이냐 말야?』

『내가 뭐 너같은 줄 아니?』

무자비한 자기보호본능 같은게 남의 마음을 할퀴는 소리를 서슴치않게 했다。

『나도 첫경험은 언니처럼 그렇게쉽진 않았으니까 하는 소리야』

춘자도 지지않고비꼬았다。

『그인 그동안 쭉 날 찾았대。내 생각만 했대。자그만치 오년동안이나』

『그래서?』

SAMKO SALES

(Closeout Specialists)

여러종류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의 남은 많은 상품을 인수하여 최저가격으로 소매상에게 팝니다. 특히 유명메이커 장난감과 선물용 제품·학용품·HOUSE WARES도 도매가격보다 훨씬싸게 공급합니다.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놀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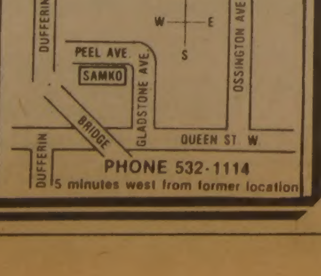
여름 STORE HOURS : 월·화·수요일만 OPEN합니다.
(오전9시~오후4시30분)

※새장소로 옮긴후부터 (82년7월5일(월)) 여러분께 개장합니다.

이 광고를 가져오면 멤버·카드를 드립니다.
또는 한국일보에 멤버카드를 요청하면 됩니다

CASH·CHARGEX·MASTER CHARGE
NO PERSONAL CHEQUES

WHOLESALE ONLY(ADULTS ONLY)
어린이 절대 출입금지
1230 QUEEN ST. W. (Near 더프린)
☎ : 532—1114



PHONE 532-1114
5 minutes west from former location

OUR NEW ADDRESS IS 1230 QUEEN ST. WEST WITH STORE ENTRANCE ONE BLOCK NORTH AT 11 PEEL A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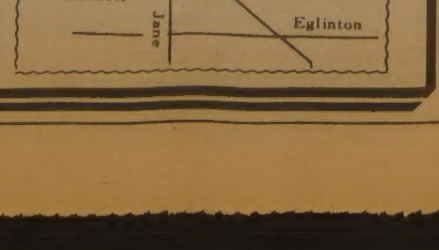
<서울식품 서부>

인사말씀

저희 서울식품 서부지점 개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보답코자 오는 7월24일(토)까지 냉면(2인용)을 Free로 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구경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철저한 봉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김영록　배

1391 Weston Rd.
☎ : 243—9544



무악재 惡夢…또 「都心 地震」

——西小門 지하철 2號線 6~9工區

H빔·복공판폭삭 爆擊맞은듯
送水管터져물바다…現場차단
승용차·크레인 25m 곤두박질…火焰

서울도심지하철공사장에서 또 대형붕괴사고가발생했다.

1일상오10시45분께 서울 中區西小門洞75 뉴KAL빌딩 신축공사장앞 지하철2호선619공구 (시공자 極東건설)에서 복공판(가로25m 세로30m)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위를지나던 서울1다5597호 레코드로얄 승용차와 작업중이던 그랩크레인등 차량2대가 지하25m아래로 곤두박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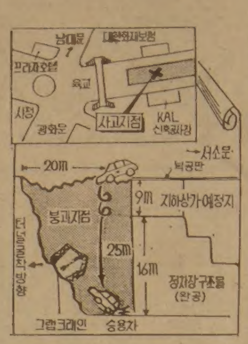
(관련기사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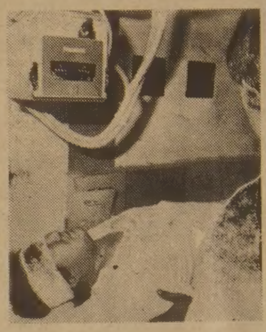
승용차는 추락하면서 불이 났는데 이사고로 승용차에타고있던 차주 金泰珍씨(40·서울龍山區漢江路2街15)와 운전사 李光洙씨(34·서울冠岳區新林4洞500의2) 가중상을 입었으며 현장목공 魯点萬씨(29)등 5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사망피해는없었다.

서울 西大門區 峴底洞 무악재 지하철3호선 공사장연쇄 붕괴사고(지난4월8일)에 이어 발생한 이번참사는 지하철2호선(순환선)의시청쪽 개착식구간과 西小門고가도로쪽 산악터널식 공사구간의 연결지점에박힌 H파일이 흙의 압력을이기지못해 무너지면서 서로얽혀있던 I빔과 그위에 깔려있던 복공판이동시에 무너져 일어났다.

『꽝』 한는 소리와함께 갑자기 무너져내린 사고현장은 불길이 치솟았고 대형송수관이 터져 물이 솟아졌으며 또 H빔과 I빔 복공판2배여장이 뒤얽혀 마치 지진이 지나간 자리처럼 보였다.

이사고로 현장부근 반경 40여m까지 지반에 균열이 생기는 바람에 제2의 붕괴우려가 높아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차단됐는데 완전복구하는데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구했지만 중상을 입은 차주金泰珍씨。

◇운전사 李光洙씨。

鐵製파일 깊이 안박아
土壓 못이겨 슬라이딩

[원인] 한편 李相淵서울시부시장은1일 하오『사고지점인 터널식굴착 착수부분의 암반에는 통상 철제파일을 깊이 박지 않기때문에 이파일이암반위에서 슬라이딩현상을 일으키면서토압때문에연쇄적으로 붕괴한것』이라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李부시장은 사고현장이 정거장이 들어설곳으로 공사구간의 폭이 넓고 깊어 사고위험이 높기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도 취약공구로 지적돼있었다고 밝혔다.

李부시장은『사고현장주변의 대형빌딩등 기존건물과 뉴KAL사옥, 유원건설본사 사옥신축 공사장등에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결과 더이상의 도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대책본부(본부장 金成給極東건설전무)는 인부70명과함께 크레인4대、페이로더2대、불도저1대、덤프트럭 50대등장비를동원、사고지점의 강재 1백70톤을 제외하고 H파일을 다시박아토류판을 설치한뒤 10만루베의 토사를 메워 5일까지 복구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측된 事故…세차례 "꽝" "꽝"
重輕傷6명 半徑40m까지 地盤에 균열

[사고] 이날 사고는 상오10시45분 1차 대형붕괴사고가 난뒤 11시46분、12시19분등 두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붕괴가 계속됐다.

1차 붕괴사고당시 현장에는 작업인부들이없었고 약20m거리에있는 공사완료구간에는 魯点萬씨(29)등 목공 10여명이 철근콘크리트 준비작업을 하고있었다.

魯씨에 의하면 이날 동료들과 작업을하고있는데 갑자기『꽝』하는 소리와함께 벽에 금이가고 뒤이어 붕괴지점부근의 H파일、I빔、복공판등이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는것.

魯씨는 순간 정신없이 시청쪽으로 도망쳐나와 10여분간을 컴컴한 지하에서 헤매다 상수도관을 타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魯씨는『사고당시 붕괴지점에 있던 3백㎜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나와일시에 H파일이 무너져내렸다』고말하고 복공판 무너지는소리가난 조금뒤 검은색승용차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최소한 2시간 경계는 사흘전에 이미 예측됐었다.

시공자인 極東건설은 이날 상오9시께 붕괴지점인 개착식구간과 터널식구간 연결지점 13m구간에박힌 H파일사이로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보완작업을 하고있던 중이었는데 붕괴위험이있어 이날 상오10시께부터 뉴KAL빌딩쪽으로 나있는 2차선왕복차도를 부분통제했었다。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極東건설은 사고3일전 터널식구간에 대해 발파작업을하려고 했으나 화약관계자들이 당시 상태로서는 붕괴위험이 크다며 보수작업을 요구、보수작업을 끝낸후 이날부터 발파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추락승용차 全燒로 불번져
復舊하려면 1주일 걸릴듯

[현장] 이날 붕괴사고는 시청쪽 완공된 구간에서 지하상가 건설공사가 시작된지점과 터널식구간에 들어서는 연결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고당시 붕괴지점 위에는 정치식그랩크레인이 설치돼 있었고 바로 옆에는 철근20여 다발이 놓여 있어 하중을 가중시켰다。

복공판위를 지나다 추락한 서울4라5597호 레코드로얄 승용차는 25m아래로 곤두박질、강재에 부딪치는 순간 불이나 10여분동안 검은 연기를 내면서 차체가 모두 타버렸다。

현장에 설치됐던 그랩크레인은 사다리형의 형체가 찌그러진채로 흙더미에 일부가 묻혀 있었다。

붕괴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치솟자 인근 소방서에서 1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승용차에 붙은 불을 끄기도했다。

峴底洞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를기억하는 시민들은 이날 일손을 모두 놓고 인근빌딩 옥상에 올라가 현장을 바라보며 사상자가 없기를 바랐다。

마침 그시간通過
레코드車主 金씨

[구조]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서울4다5579호 차주 金씨와 운전사 李씨는 현장 인부들에 의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다。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서울大병원에 입원한 차주 金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복공판위로 지나가는순간 갑자기 밑이 무너지면서 차가 2~3차례 구른뒤『꽝』하는 금속성과 함께 강재사이에끼여 멈추었으며 의식을 잃었다가 깬 金씨는 차문을 열고 나와 10여m가량 강재를타고 기어 올라오다가 현장에있던 철근공 李李洙씨(30) 李聖鎬씨(23)등 인부4명의 도움으로구조됐다。

한편 차주 金씨보다 늦게 구조돼 高麗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사 李씨도 차에 불이 붙기 직전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인부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을 찾지못하고 있다。

現場소장등 召喚

[수사] 西小門지하철2호선붕괴사고원인을 수사중인 서울 西大門경찰서는 이날 極東건설의 현장소장安世濬씨(44)와 현장공사과장 문종언씨(38)등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極東建設] 자본금98억원으로 53년4월에 설립된 건설업체로 81년 도급순위가 13위、82년에는 18위로 도급한도액은 1천4백억원。경부고속도로건설에참여、70년에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75년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건설업자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極東建設은 해외건설에도 참여、사우디아라비아와 臺灣에서 10억달러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다。

◇뻥뚫린 安全 지진이 할퀴고 지나간듯한 서울西小門 지하철2호선 붕괴현장。안전공업을 외면한 무리한 공사진행이 사고의 원인이됐다。

지하철2號線 乙支路6~7工區서도
車道내려앉아 큰混雜

또 1일하오 2시30분께서울中區乙支路2街72 스포츠백화점앞 지하철2호선 617공구 공사장에서 세로5m 가로3m의 차도가 내려앉았다.

이날 붕괴사고는 시공회사인 三扶토건이 乙支路2街로터리 지하도공사를 하기위해 三一路쪽 지하10m에서 소형포크레인으로 흙을파내는 작업을하다 H파일사이로 로터리중앙부분의 흙이무너져 일어났다.

三扶토건측은 H파일사이에 토사의 붕괴를 막는 버팀보를 설치하지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三一路쪽인도가 차단됐고 사고현장부근 사방30m에서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病院서 처방전못떼줘
木浦84개藥局 요양機關지정 申請안해

【木浦=鄭崇鎬기자】2종의료보험제도실시 첫날인 1일 木浦지역의 84개 약국들은이날하오5시현재 木浦市의료보험조합에 요양기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고있다.

木浦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30일 서울에서열린 대의원총회에참석차 상경했던 木浦시약사회장등 약사회간부들이 돌아오지 않고있어 승인신청을 보류하고 있다는것인데 이들은 회장이돌아오면 그간의 경과등을 보고받고신청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木浦시내 병·의원들은 이날 약국측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돼있지않아 처방전을 발행하지못한채 종전처럼 환자에게 직접약을 조제해주었고 약국들도 처방전없이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한편 木浦시민들은 병·의원에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木浦市의사회장 丁大과씨(50·丁피부과원장)에 따르면 이날 자신이 경영하고있는 의원에도 20명의 2종보험환자가 다녀갔다는것.

또 1차진료와 2차진료를 겸하고 있는 시내적십자병원、성콜롬바병원등 종합병원에도 많은 2종보험환자들이몰렸다고 丁회장은 밝혔다.

韓의원 民韓변호인 裵法務등 방문協議

간통혐의로 구속된 韓英洙의원의 民韓黨변호인단(朴炳一·睦堯相·李官炯의원)은 1일상오 裵命仁법무장관과 金錫輝검찰총장을 각각방문、韓의원구속에따른 문제를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民韓黨변호인단은 韓의원이 증거인멸및도주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불구속으로 사건을 다뤄야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裵장관과 金총장은 이를 고려할 뜻을 밝혔다고 변호인단이전했다.

釜山 水道局長 賂物받아立件

【釜山】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부산시수도국장 蔣和明씨(54) 북구청건설과장 金定得씨(44)를 뇌물수수혐의로、골재판매업자 김정자씨(41·여·南區大淵3洞405)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蔣씨는 부산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77년12월께 업자金씨로부터 海雲臺區 石臺洞石臺川 골재채취공사를 맡게해달라는 부탁을받고 1백만원을 받았으며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소의 공사과장으로 있던 金씨는 79년 2월12일께 海雲臺區 石臺洞소재 李모씨소유의 잡종지골재채취허가관계를 잘봐달라는 조건으로 같은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쓴 혐의이다.

LA 總領事관저 승용차强盜 검거

【로스앤젤레스1日=聯】지난21일 朴民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자동차 강도범들이 사건발생 10일만인30일 경찰에 체포됐다.

로스앤젤레스 윌셔경찰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한 주유소에서 도난당한 朴총영사의 승용차타이어를 다른 자동차 타이어로 갈아끼우려던 범인 8명을 현장에서 체포、이중 2명은 강도혐의로、4명은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다른2명은 미성년자라서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강도혐의로 구속된 2명중 1명을 범인으로 추정하고 계속 신문중이나 범인은 朴총영사 강도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7월1일 朴총영사와 대질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6억不渡후 도주 會社사장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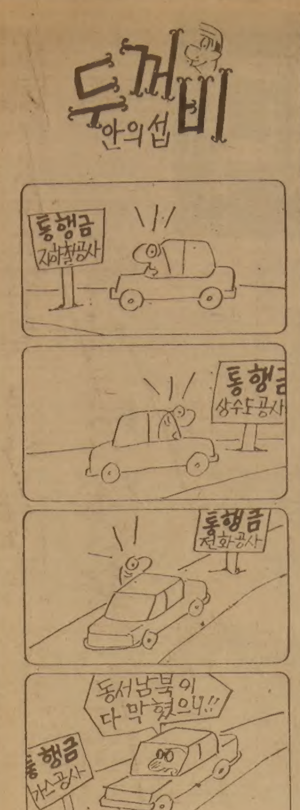
【大邱】대구지검은 1일 경북 慶山郡 慶山邑 中方洞 164 월광섬유주식회사 사장 崔成鎬씨(51·부산 西區 西大新洞3街360)를 검거、부정수표단속법위반및 무역거래법 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월광섬유등 3개법인체와 개인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63년 2월6일부터 79년 6월5일 사이 한국상업은행 부산지점과 大邱지점、서울南大門지점등 4개은행지점과 당좌를개설、수표거래를 해오던중 지난81년12월15일부터 지난3일까지 월광섬유 사무실등지에서 유모씨등에게 당좌수표 64매(액면 6억4천52만8천여원)를 발행한뒤 부도를 내고달아난혐의이다.【聯】

高利미끼 8천만원 詐取
夫婦사기단 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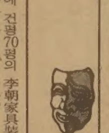
【春川】강원旌善경찰서는1일 주민37명에게 높은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8천여만원을 사취한 이은희씨(30·여·旌善郡舍北邑舍北7里10반)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남편 나영준씨(38·사료판매업)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나씨와 짜고 지난79년9월27일 같은마을 박진원씨(48)로부터 월4부 이자를주겠다며 3백만원을 빈것을 비롯지난 6월17일까지 모두 68회에 걸쳐 37명으로부터 총 8천8백2만8천원을 빌어 가로챈 혐의이다.【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洋靴工의 外道
李朝가구裝飾에 미친 金昌文씨
쇠붙이 流浪30년…그 가슴에 勳章



양화공 金昌文씨(61·사진·晉州市大安洞13의10)가 1일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武勇을 떨치거나 구두를 튼튼하게 잘만들었다고해서가 아니다。「이조가구장식」때문에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못한 훈장을 받은 것이다。

「金昌文씨」하면 晉州에선는 장롱에 붙은 쇠붙이에 미친 사나이로 통한다。양화공이 구두는 만들지않고 쇠붙이를 찾아 전국헌가구적、고물상을 뒤지고 다니니 그럴만도 하다。그동안 모은 가구장식만도 20만점에 자물통이 2천개。이것도 부족、이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지난3월 3천만원을 들여 晉州市大安洞에 건평70평의 李朝家具裝飾文樣박물관 까지 마련했다。

金씨가 이조가구장식에 미치기시작한 것은 30세때인 1951년이다。하루는 구둣방에 앉아 지나가는 엿장수의 엿판을 무심코 바라보다 묘한 쇠붙이에 눈길이 멎었다。이조가구장식이었다。이를 2백원에 사가지고와 바라본는 사이에 무릎을 치게 되었다。

이때부터 金씨의 유랑생활이 시작됐다。양화점은 부인 權東順씨(54)와 직공에게 맡기고 전국방방곡곡을 누볐다。가구장식만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달려갔다。장식구입자금이 모자라 1천8백평의 금싸라기 땅도 팔았다。주위에서는 어지러움병이 지랄병이 된다더니 미쳐도 곤란하게 미쳤다고 수군거리고 친구들은『미친짓 그만하고 아이들이나 잘 키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쏟아져나오는 장식을 내던져둘수는 없었다。변하지않는 스테인리스장식이등장함에따라옛가구에 붙은 장식은 푸대접을 받기시작했다。옛장식은 주석·백통등으로 만들어 연탄가스에 쉽게 색깔이 변하기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않게 된것이다。

金씨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전국 일주횟수는 점점 늘어났다。지금까지 전국일주한 횟수는 본인도 기억할수 없을정도。피곤할때도 많았지만 봉황새가 불로초를문 장식、머리는 용·몸은 호랑이인것등 희귀한 장식을 찾아냈을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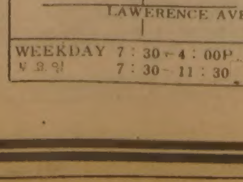
『모으는것도 중요하지만 조상의 숨결이 어린 장식을 잘보존해 후세에 전하는것이 더 중요하지요』훈장을주는 정부의 깊은 이해에 큰힘을 얻었노라 했다。【李炳日기자】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송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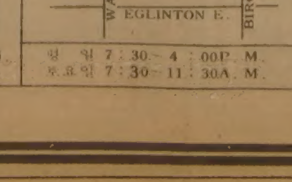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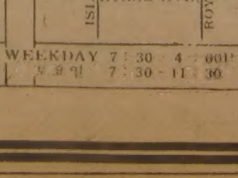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옴·존



평 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찰리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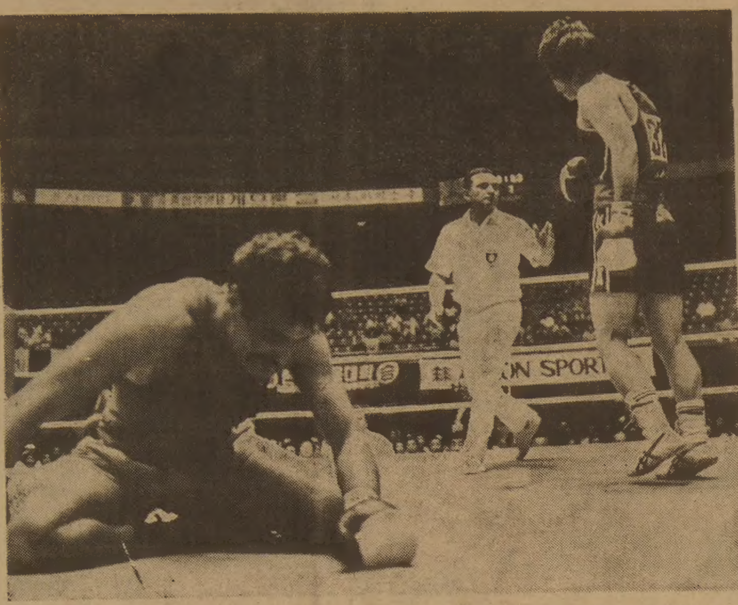
朴基哲·鄭鎔範·李南儀도 결승에

亞洲 아마복싱 한국、銀 5·銅 7개 확보

泰國 銀4·銅5개로 뒤쫓아

파키스탄 자멘에 RSC勝 鄭

苦戰끝에 全員일치 판정승 朴



◇冷酷한 勝負의 세계 미들급 준결승전 마지막 3라운드서 파키스탄의 후사인⑤이 李南儀의 강펀치를맞고 캔버스에 주저앉았다.

한국은 제10회 아시아아마복싱선수권대회 제5일째 준결승전에서 페더급의朴基哲, 웰터급의 鄭鎔範, 미들급의 李南儀가 각각승리하여 은메달3개를 추가, 지금까지 은메달5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플라이급의 權彩吾가 계체량후 고열로 경기를 포기하여 동메달에 머무름으로써 동메달7개를 확보했다.

泰國은 이날 플라이급서만 은메달을 확보, 은메달4개, 동메달5개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印度는 은3, 동3 日本은 은3, 동2로 泰國을 뒤쫓고있다.

30일 잠실체육관서 속행된 경기에서 鄭鎔範은 파키스탄의 자멘을 맞아 첫라운드 초반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분28초께 라이트훅 단발로 다운을 빼앗았다.

鄭은 2라운드 초반서도 라이트훅으로 자멘을 다운시킨뒤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이은 라이트 훅으로 다운을 얻고 2회 1분14초만에 RSC승을 거두어 강타자 마차이아(인도)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해 제2회 월드컵대회(몬트리올) 동메달리스트인 朴基哲은 印度의 사비에르에게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힘든 게임을 전개했다. 사비에르는 좌우스트레이트와 라이트훅을 맞으면서도 저돌적으로 파고들며 훅과 원투스트레이트를 적중시켰다. 李南儀는 첫라운드 1분여를 남기고 파키스탄의 후사인의 레프트훅을 안면에 맞고, 다운됐으나 40여초 뒤 라이트훅으로 다운을빼앗고 치열한 난타전을 전개했다.

李는 2라운드 1분여를 남기고 후사인을 코너로 몰아 소나기펀치를 퍼부으며 난타전을 전개했다.

李는 3라운드 1분40초께 라이트스트레이트로 다운을 뺏은뒤 45초를남기고 후사인을 다운시켜 통쾌한 RSC승을 거두었다.

◇제5일 전적

▲플라이급 준결승
아말다스(인도) 판정 하다께야마(일본)
클린찬(태국) 부전승 權彩吾(한국)

▲동 페더급
히구찌(일본) 1회KO 하르멘(인도네시아)
朴基哲(한국) 판정 사비에르(인도)

▲동 웰터급
바차이아(인도) 2회KO 원폭청(홍콩)
鄭鎔範(한국) 2회RSC 자멘(파키스탄)

▲동 미들급
李南儀(한국) 3회RSC 후사인(파키스탄)
요꼬야마(일본) 판정 당소파르(태국)

大宇重工業·코카콜라 決勝에

82년 全美오픈卓球 단체전서

첫날 한국·스웨덴接戰

大宇중공업 남자탁구팀과 釜山코카콜라여자탁구팀은 30일 미국 [illegible]에서 개막된 82년도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각각결승에 올랐다고 선수단이 탁구협회에 알려왔다.

한국, 美國, 日本, 스웨덴, 캐나다등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첫날 여자단체전은 라운드로빈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른결과 한국A, B팀과 일본A팀등 3팀이결승리그에 진출했다.

申得花·鄭庚子를 주축으로한 한국A는 예선서 스웨덴, 캐나다를 각각 3-0으로 완파, 2승을 올렸으며 朴末粉·韓美玉·張金玉의 여자B팀은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를 각각 3-0으로 꺾은후 日本A팀을 접전끝에 3-2로 물리쳤다.

남자예선전서는 孫城淳·金泰秀의 한국A팀이 베네수엘라·日本을 각각 3-0으로꺾고 준결승에 진출, 홈팀인 美國을 3-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A팀은 2일 日本A와 결승전을 벌인다.

한국은 지난해 이대회 단체전서 東亞建設여자팀이 우승, 第一合纖남자팀이 준우승, 3위를 차지한바있다.

실업野球 夏季리그

朴承昊 홈런등 12安打

星武、韓電완파

星武는 1일 서울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속행된 실업야구 하계리그 6일째경기서 朴承昊의홈런등 12안타로 農協을 4-0으로 완파, 2승2패를 기록했다.

한편 韓電과 第一銀行은24개의 안타를주고받는 난타전끝에 韓電이 8-6으로 승리했으며 韓國化粧品은 商業銀行을 4-0으로 눌렀다.

◇6일전적

농협 (1승1무2패)	000	000	000	0
성무 (2승2패)	021	101	00×	4

배구대표팀 主將 姜斗泰 어깨부상

한국남자배구 대표팀주장 姜斗泰(25)가 오른쪽 어깨부상을 치료하기위해 지난달 30일태릉선수촌서퇴촌했다.

姜은 오른쪽 어깨를 둘러싸고있는 신경이 근육을 압박, 마비증세와 함께통증을 느끼고있는데 4~6개월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姜斗泰는 현재 경찰병원 河權益정형외과 과장으로 부터 치료를 받고있다.

서울國際농구 3개조로 나눠 豫選리그

오는8일 장충체육관서 개막되는 서울국제농구대회 조편성과 예선리그대진이 1일 확정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8개국서 9개팀이 출전, 3개조로나뉘어 예선리그를 치른다음 각조상위2개팀이 결승리그에올라 패권을 가리게 된다.

한국은 대표팀과 대학선발팀을 출전시키고있는데 대표팀은 스웨덴 印度와 함께 A조, 대학선발은 뉴질랜드 필리핀과함께 C조, 미국 말레이지아 자유중국은 B조에속해있다.

한편 8일 첫날 경기는 하오 3시 한국대표와 스웨덴의 대결로 시작된다.

◇조편성

▲A조=한국대표, 스웨덴, 인도▲B조=미국, 말레이지아, 중국▲C조=대학선발, 뉴질랜드, 필리핀

◇예선리그 일정

▲7월8일=한국대표-스웨덴(3시) 뉴질랜드-필리핀(4시30분) 말레이지아-중국(6시)▲9일=대학선발-뉴질랜드(3시) 미국-말레이지아(4시30분) 한국대표-인도(6시)▲10일=대학선발-필리핀(3시) 미국-중국(4시30분) 스웨덴-인도(6시)

38개國서 엔트리 서울오픈卓球

제2회 서울오픈탁구선수권대회(8월25~31일) 조직위원회는 1차참가 신청서를 마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중동, 오세아니아에서 38개국이 엔트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1백25개국 국제탁구연맹(ITTF) 회원국에 초청장을 발송한바 있는데 2차는 7월10일, 최종엔트리는 7월20일마감된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최소한 40개국이상이 참가할것으로 전망했다.

北韓수용소群島 해방촉구

千3백만명 署名

「北韓수용소群島 해방 촉구1천만署名운동」 기간인지난 6월한달동안 1천3백86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以北5道民 중앙연합회 金連珪회장은 30일 이같은 서명운동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사회각계단체의 후원과 성원으로 추진해온 이서명운동은 전국7백85개소와 해외79개국에서 일제히 실시돼당초 목표 1천만명을 훨씬 넘어섰다』며 이 운동을 6월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단합과 피끓는 동포애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北韓공산집단에 대해서는 잔악한 파쇼적주민탄압에 警鐘을울렸으며 金日成父子의 世襲봉건王朝가 反역사·反민족적인것으로서 결국은 파멸로 전락할 것임을 깨우쳐주었다』고 강조하고 『北韓은 南北간의 긴장완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위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수락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그런데 이번 署名者數는 內國人 1천3백77만1천8백82명, 해외 거주 또는 체류 한국인 9만1천5백4명、그리고 6·25參戰용사등 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됐는데 內國人을 분야별로보면 학생이 3백81만1백49명、군인(예비군포함) 1백59만8천9백26명、사회단체 소속인사 90만1천여명 기업체소속인사 82만8천7백여명、공무원 47만7천여명 일반국민 6백15만5천여명등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日近畿大·美대학野球선교팀 來韓

오늘부터 親善경기

日本긴끼(近畿)대학야구팀과 美國대학야구선교팀(AIA)이 한국을 방문, 2일부터 국내대학팀및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9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앞둔 국가대표선수들은 현재 진행중인 실업야구하계리그와함께 AIA와 3차례 전력평가전을갖게된다.

◇近畿大경기일정

▲2일=對高麗大(서울)
▲3일=對東國大(서울)
▲6일=對仁荷大(인천)
▲9일=對漢陽大(서울)
▲10일=對建國大(서울)

◇AIA경기일정

▲5일=對한국대표(서울)
▲6일=對한국대표(서울)
▲8일=對한국대표(서울)
▲10일=對仁荷大(인천)

킹·에버트準決진출

윔블던 테니스大會

【윔블던(英國)30日AP·UPI=聯合】 윔블던테니스대회여자단식에서 빌리·진·킹(38), 크리스·에버트,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가 각각 준결승에 진출했다.

최근 성적이 부진했던 킹은 30일 여자단식 5회전에서 랭킹3위에 올라있는 트레이시·오스틴(19)을 2-1(3-6, 6-4, 6-2)로 격파, 파란을 일으키고 지난해 선수권자인 에버트, 로이드와 준결승에서 격돌케됐다.

에버트는 바바라·포터를 2-0(6-2, 6-1)으로(가볍게) 물리쳤다. 나브라틸로바도 조안·러셀을 2-0(6-3, 6-4)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海外토픽

★非情의 40代日女人 保險타려 아들殺害

내연의 남편의 아버지 장례비를 마련하기위해 6살난 자식을 죽이고 3백50만엔의 보험금을 타려던 비정의일본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또·다마에(48)라는이 여인은 경찰에서 내연의 남편이 그의 아버지 장례비용 30만엔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녀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자신은 이를 고민하다 아들에게 함께 자살할것을 호소했으나 말을 듣지않아 아들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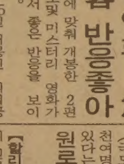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10년전부터 법적인남편과 별거해왔다. 【京都=聯】

★中共 日製品 수입금지 돼지쓸개 救心제조

중공당국은 최근 심장병약으로 중공에서 인기를 얻고있는 일제구심(救心)의 주성분이 웅담이 아니고 돼지쓸개인것을 발견하고 구심의수입을 금지했다고 홍콩의 문회보가보도.

이신문은 또 중공당국이 이약의 메이커인 구심제약에 대해 중공내에서 판매중인구심을 회수해 가도록 요청하기로결정했다고 덧붙여보도.

한편 일본의 구심제약측은구심의 주성분을 수년전부터 웅담에서 돼지쓸개로 대체했으나 이사실을 한자로된 구심약병표지에 밝히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 60정 1병에 약10달러에 시판되고있는 구심이 중공에서는 46정 1병이 무려1천달러에 팔리고 있다. 【홍콩=聯】



海底노다지를 찾아라

印度 17세기 葡보물船등 묻혀

연안海만 수백척…5개년 계획도

英서도 튜더王朝戰艦 인양 한창

◇16세기 英튜더왕조때의 전함 메리로즈號(그림) 인양작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新安해저보물선의 선체인양작업이 화제를 모으며 한창 진행되고있는것과 때를 맞춰 외신은 英國의 포츠머스항에 침몰된 튜더왕조전함과 印度해양연구소의 대대적인 발굴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튜더왕조 전함 메리로즈號는 곧 인양될단계에 있으며, 印度연안의 탐사작업은 수중음파탐지기를 동원, 대대적으로 착수되고있다는것.

○…웅장한 튜더왕조때의 전함 메리로즈號의발굴은 가장 야심적이며 고고학적가치를 지닌 해저발굴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메리로즈號는 서기1545년7월19일 헨리8세치하의 해상활동과 사교활동의 진면목을 한순간에 응고시켜놓은채 4세기가 넘도록 바다밑 모래에 묻혀 잠을 자고 있었다.

포츠머스항의 방어를 위해 프랑스함대와 싸우던중 7백명을 실은채 가라앉은 메리로즈호의 잔해는 1836년 다이빙의 개척자인 딘·브러더스가 처음 발견했다. 그뒤 알렉산더·매키가 다시 이를 탐사, 1970년부터 과학탐사가 시작됐으며 79년 찰즈 황태자를 회장으로한 메리로즈·트러스트가 결성됐다.

고고학자 마거리트·룰女史의 지휘로 진행되고 있는 선체발굴작업에서 포열과 당시의 긴활, 궁수의 배치, 그리고 기구가 완비된 이발소와 의료실이 발견되는등 기물 2천여점을 건져올렸다.

마지막으로 선체인양작업이 진행되고있는데 거대한강철판을 침몰선위에 내려놓고 선체안에 만들어놓은 강철골조와 연결시킨다음 나일론끈으로 단단한 상자형태를 만들어 끌어올리는 방식을 쓸 예정.

일단 끌어올린 다음에는 도크의 물속에 담가놓고 탈염처리를 2년간 한다는것.

메리로즈·트러스트는 이 전함을 기물과 함께 그대로 보수하여 포츠머스·튜더선박기념관에 보존할계획이다.

【駐韓영국대사관제공】

印度국립해양연구소(NIO)는 최근 1648년에 침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12척의 포르투갈 보물선을 비롯한 해저침몰어선발굴을 위해 대대적인 연안탐사에 착수했다.

5개년계획으로 추진될 이사업은 침수된 옛항구와 침몰한 배 및 유물들을 발굴·인양하여 인도의 5천년해양사를 다시 정리하기위해 마련된것.

印度연안해저에는 금은보화와 예술품을 싣고 항해중 침몰한 외국상선을 비롯, 수백척의 배가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항구와 갑판·함만시설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NIO과학자들은 고고학자 S·R·라오박사의 지휘로 우선 고아해안의 어선잔해탐사를 실시하고있다.

NIO는 고아탐사가 끝나면 역사적 기록에따라 배가 침몰한것으로 전해지고있는 베르소바, 칼리안, 다만, 수라트, 버자야와다, 마드라스, 폰디체리, 라카다이브섬, 캘커타 연안등을 차례로 탐사한다.

남부 타밀·나두 주정부의 재정후원으로 실시되는 이사업에는 수중음파탐지기와 같은 최신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

해양고고학연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 인양유물을 고고미술품으로 팔아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기도하는데 NIO의 과학자들은 과학산업연구위원회산하에 해양고고학센터를 설립하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NIO가 작성한 해양수로측량도에 따르면 수백척의 배가 연안근처의 수심30m이내의 얕은 바다에 묻혀있는 것으로 돼있으며 침몰한 배의 상당수는 보물을 싣고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실제로 1648년4월 아구아다만에서 폭풍으로 침몰한 12척의 포르투갈배와 옛 포르투갈식민지 고아해역에서 침몰한 6척의 배는 고아로 대금결제를 위해 금화와 은화를 싣고가던 것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있다.

NIO과학자들이 담당하게될 주요임무는 역사기록과 작성된 수로측량도에 의거, 실제 선체와 항구의 잔해를 발굴, 인양하는 일이며 이중 상당수는 수심이 30m도 못되는 곳에 묻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편】

인터뷰

TV劇「새아씨」하녀役 金守美

映畵「화순이」主役데뷔

"내分身같아… 이젠 自信있다"

본명보다는 「화순이」(「새아씨」의 하녀역)로 더 잘통하는 탤런트 金守美(33)。 TV드라마에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탤런트」로 칭찬을 받아온 그가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고, 연기생활 12년만에 첫 주연을 맡았다.

출연영화는 MBC·TV드라마「새아씨」의 하녀 화순이를 모델로 그린 「화순이」(감독 李尙彦)。 시골에서 약혼자를 찾아 상경한 팔푼이 처녀가 주인공이다.

『처음 출연요청을 받았을 때는 선뜻 응낙을 못했어요. 영화출연이 처음이라 겁도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화사측의 끈질긴 요청에 그만 고집을 꺾었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기획에도 참여, 대사를 수정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행동도 감독과 함께 연구했다고한다.

『고향이 群山이어서 湖西지방 사투리를 많이 알고있어요. 또 고향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눌때면 그들의 사투리를 메모해두곤 했는데 이번 영화출연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金守美는 촬영중에는 입술이 부르트는등 고생이 많았지만 시사회에서 스태프·캐스트의 열의를 읽고는 그만 왈칵 눈물이 솟았다고한다. 특히 상대역인 白一燮과 호흡이 맞아 자신이 자랑스러워 보였다고.

『영화를 보면서 몇군데 다시 찍었으면 하는 장면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고는 처음 겁먹은 것과는 달리 자신을 갖게 됐어요』

그는 「화순이」야말로 자신의 분신같은 인물이라고 말한다. 자화상이나 다름없다는것. 金守美는 또 화순이라는 이름과 인연이 깊다. 이번 영화와 TV에서 「화순이」역을 맡았고 72년 「아다다」에서도 독부 화순이역을 맡아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작고) 의이름도같았다.

첫출연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가슴 설레 밤잠도 설친다는 金守美。 TV드라마「새아씨」에서는 주연인 金英蘭·金甫娟·李正吉보다 더 인기를 모았던 그는 「화순이」역이야말로 연기자로서는 탐나는 역이라고 말한다. 사업을 하는 동갑나기 남편 鄭昌奎씨와의 사이에 明浩군(8) 주리양(4) 남매를 두고있다. 【李】

恐怖영화 2篇 觀客 반응좋아

계절에 맞춰 개봉한 2편의 공포및 미스터리 영화가 흥행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 25일 개봉된 괴기공포영화「관속의 드라큘러」(스카라)와 하루늦게 간판을올린 미스터리스릴러영화「火女」(국도)는 모두 1일평균 4천여명의 관객을 끌어들이고있다는것.

원로監督 킹死亡 「慕情」등 남겨

【할리우드30日UPI=聯合】 미국의 원로영화감독 헨리·킹씨가 29일 산페르난도계곡의 자택에서 잠자다 사망했다고 그의 가족대변인이 30일 발표했다. 향년96세.

무성영화시대에서 출발, 유성영화시대의 개막을 가져왔던 왕년의 영화감독들중 마지막 생존자의 한사람이던 킹씨는 40년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전파이터』『慕情』(러브·이즈·어·매니·스프랜더드·싱)『베르나데트의 노래』등 1백여편의 작품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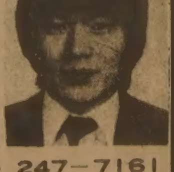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했슨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a.m.~5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
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
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진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夏穀收買값 7% 인상

2等品 한가마 3萬1千7百80원

장려금 2千원別途

13.7%引上효과…放出價는 20.5% 올려

정부는 올 보리쌀 수매가격을 2등품기준 76.5kg 한가마에 지난해 2만9천7백원보다 7%올린 3만1천7백80원으로 결정, 농가출하희망 전량을 수매키로하는 한편 보리증산을위해 별도로 가마당 2천원씩의 생산장려금을 동시에 지급키로했다.

생산장려금을합친 올해 보리수매값의 실질적인 인상률은 13.7%이고 수매가격은 가마당 3만3천7백80원이 된다. 수매기간은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45일간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30일부터 보리쌀방출가격(도매)을 76.5kg 가마에 종전 1만9천3백55원에서 2만3천3백30원으로, 소비자가격을 2만1천60원에서 2만5천4백원으로 20.5%올렸다. 또 혼합곡도 10kg들이 1부대에 소비자가격을 4.2%올려 4천2백10원을 받기로했다.

朴鍾汶농수산부장관은 30일 한자리숫자 물가를 지키기위해 올 보리수매가를 소비자가상승률(6월15일현재 전년동기대비 4.4%)보다 다소 높은 7%로 인상했으나 해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고있는 보리의 증산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主穀의 자급도를 높이기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매에 응한 보리가마당 2천원씩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수매대금과함께 지급키로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량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수매대금지급시 공판금및 농협빚을공제하거나 相計하는일이없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품질검사에 대한 농민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당일 재검사를 실시하는등 수매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할것도 아울러 시달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리쌀 생산량은 지난해의 6백67만석보다 준 6백13만석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수매예상량은 3백50만석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약재배에의해 수매하는 맥주맥의 수매가격은 2등품기준 11.6%올라 50kg들어가마당 1만7천7백20원에서 1만9천7백70원이 됐다.

◇보리쌀방출가격

종류	단위	방출가격		소비자가격	
		현행	조정	현행	조정
보리쌀	76.5kg	19,355	23,330	21,060	25,400
혼합곡	10	3,657	3,813	4,040	4,210

各黨서 聲明

民正·民韓·국민당은 30일 정부의 夏穀수매가결정에 대해 다음과같이 성명을발표했다.

▲民正黨金泰鎬대변인=올 물가안정을 한자리숫자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物價정책과 농민의 생산비보상 원칙을 적절히 조정한 현명한 결정이다. 더우기 減産추세에 있던 夏穀을 增産으로 유도하기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民韓黨 金珍培대변인=농민에게 생산비보장은 커녕 농수산부가 밝힌 農家구입가격상승률 8%에도 미치지못하는 인상률이다. 생산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서 어떻게 主穀自給을 달성할수 있겠는가.

▲국민당李成一대변인=보리영농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부가 또다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파탄직전의 농촌경제를 외면한 처사이다.

社會漫評

옆문도 하루빨리…

優良기업 全面지원

景氣부양後續조치 所要자금 全額대출

1千개업체이상 選定

事後保證방식 同一기업엔 1億이내

◇韓-美友誼는不變 訪美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과 회담하기 앞서 美국무성 로비에서 헤이그장관의 영접을받고 악수를 나누고있다. 【워싱턴29日 AP聯合＝聯合】

정부는 6·28조처의 후속조처로 1천개이상의 우량중소기업을 선정, 이들에대해 금융지원을 대폭확대하여 생산활동을 진작시키고 투자의욕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종래담보위주에서 신용대출로 전환, 돈을 먼저 대출하고 사후에 보증하는 방식을 택해 오는 7월5일부터 자금을 방출하도록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억제되어온 현금및 물자차관에대한 규제를 풀고 10%가 넘는 재정자금 금리를 모두 10%로내려 28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금리인하후의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위해 금융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금수급및 환율, 부동산 동향등을 日日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흐름을 체크하기로 했다.

정부는 私債 양성화방안으로 신용금고설립자유화와 기업이 가지고있는 모든私債를 신고토록하고 이를 銀行債로 貸換하는 방법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단계 후속조처에 이어 사채양성화와 개인소득세인하를 골자로한 제2단계 후속조처를 내주중에 발표한다.

28 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등 특수은행과 외환은행및 일반은행 (5개市銀·地方銀)이 사업성과 장래발전성이 양호한 우량중소기업 1천개업체를 선정하여 시설자금, 운전자금등 필요한 자금을 전액지원키로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에대해서는 사후보증제를 실시, 돈을먼저 대출하고 돈이대출된 후에 보증을하고 담보부족업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토록했다.

사후보증대상업체는 금융기관 기업체종합평가표등에 의한 신용도우수기업으로 동일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5천만원이상 소액신용보증은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금리조정에따른 국제수지대책으로 지금까지 수입금액 5만달러이상 관세율 40%이하 품목에 한해서만 DA및 유전스등 延支給수입을 허용하던것을 앞으로는 모든품목에 대해 거래금액에관계없이 허용키로했다.

재무부는 현금및 물자차관도 금융기관지급보증없이 자체신용으로 도입할경우 모두허용키로했다. 또한 외화획득용 시설재도입에 한해 지원하던 외화대출을 내수산업용 시설재도입, 국산기계류도입에도 허용하고 외국산기자재도입을 위한 원화금융지원여제, 공공차관도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伊여객기被拉… 방콕着陸

犯人은 스리랑카人

한국인人質 3명

【뉴델리30日PTI=聯合】스리랑카인납치범에의해 방콕공항에 억류돼있는 이탈리아알리탈리아 항공소속 보잉747여객기 승객중에는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는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뉴델리 경찰은 이여객기가 앞서 東京을 향해 로마를 출발한후 첫기착지인 뉴델리에서 34명의 승객을 태웠다고 전하고 이들중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한국인탑승객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다.

技能長자격 취득자 全대통령, 접견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孫泰和씨(25·한일단조유한회사계장)등 제1회 技能長 자격취득자 45명을 접견, 다과를 베풀고 치하격려했다.

이자리에는 鄭漢株 노동부장관과 한국직업훈련관리公團의 李廣善 이사장이 배석했다.

免許없이 施工 2千萬원 미만

건설업시행령改正

국무회의는 30일 건설업법 시행령을 고쳐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종래 1천만원미만이던 일반공사 (특수공사포함)의 경우 2천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 건축공사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 2백만원미만으로 정해있던 건설면허가 불필요한 주문공사도 3백만원으로 인상했다.

李外務, 부시·헤이그·칼루치國防次官 만나

軍事借款증액등 懸案논의

"한국防産品수출 協調"

【워싱턴30日=李文熙특파원】방미중인 李範錫 외무부장관은 29일 조지·부시부통령을 비롯, 퇴임을 앞둔 헤이그국무장관과 칼루치국방차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현안과 주변정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한국에 관련된 경제협력문제및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해외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등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국방성측과의 면담에서 칼루치국방차관은 韓美간에 현안으로 되어있는 FMS증액문제와 한국방산업품목의 제3국수출문제에 관해『미국은 지난제10차韓美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이문제를 한국측 요구에 부응토록 국방성내에 특별팀을 구성, 그간 검토해왔으며 이문제가 진전돼 곧 국무성측과 협의 타결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시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李장관은 全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부통령에게 전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레이건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한다는 全대통령의 뜻을 전했으며 헤이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의 재확인등 광범한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李장관은 말했다.

이날 李장관과의 마지막 공식행사인 李장관은『후임자인 슐츠장관과 만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對韓방위공약준수, 駐韓미군의 계속주둔등 對韓기본입장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韓·日外相 5일회담

李外務, 訪美귀로 經協문제 논의

李範錫외무장관은 訪美日程을 마치고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 사꾸라우찌(櫻內義雄)외상과 韓日외상회담을 갖고 韓日經協문제에 관해협의할 계획이라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李장관은 사꾸라우찌외상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5일과6일 韓日외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히고『양외상간에 經協문제가 원만히 조정되면 8월 이전에 사꾸라우찌外相이 訪韓하여 이문제를 최종타결짓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日本측은 이번韓日외상회담에서 지난주 李장관이 교착된 經協문제를타개하기위해 전달한 새로운對應策에대해 공식견해를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李장관의 이번訪日은 한국측의 요청에따라 『非공식 방문』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李장관은 3일께 東京에 도착할 예정이며 외무부의 崔東鎭 亞洲국장등 經協관계자들도 이번週末께 일본으로떠난다.

李장관은 滯日중 스즈끼(鈴木善幸) 수상을 비롯, 日정부및 政界지도자들과도 접촉할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經協문제에관해 양국外相이 직접의견을 교환하는것은 중요한의미가있다』면서『외상회담이 끝나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한 형식은 갖추게될것』이라고 내다봤다.

記者의 눈 — 姦通罪

民韓黨소속 국회의원 韓英洙씨(47)가 남편있는 가정부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새삼스럽게「간통죄」가 화제가 되었다.

간통은 물론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다.

형법제2백41조는 『배우자있는자가 간통한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相姦한자도 같다』고 규정하고있다.

간통죄를 형법에 집어넣느냐는 문제를놓고 형법제정 (53년9월18일) 당시부터 격론이 있어왔다.

당시『우리나라같은 인습과 사회전통하에서는 여자들만이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다』는여성의원들의 읍소로 가까스로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됐다는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후 간통죄의 존폐여부가크게 사회여론화된적은없지만 심각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만은 사실이다.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한사람들은 우선 정조는 형법의 제재에 의해 지켜지는게 아니고 본인스스로에 의해 지켜져야한다고 말한다.

남녀관계는 당사자들, 또는 사회윤리의 문제지 법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주장이다.

또 민법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의 제1요건으로 정하고있고 정신적고통에대한 민사배상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한다는것은 법이 개인의 감정적 복수심에 이용된다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의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형법이『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고소의 선행요건으로 이혼심판청구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자체가 간통죄의 처벌은 복수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해석을 낳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리는것도 사실이다.

간통죄를 규정하고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정도다. 대부분의 다른나라에서는 죄가 되지않는것이다.

법정형이 2년이하징역으로 돼있는 간통죄로 처벌받는경우 대개8월~10월의 징역형이 과해지지만 실형을 받는일은 드문게 현실이다.

검찰기소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소취하로 풀려나는게 대부분인 것이다.

바로 이점을 두고 폐지론자들은 간통죄의 형사처벌이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될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성들인 간통죄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현실에서는 공감되는바가 큰게 사실이다.

가정의 평온은 사회질서의 한 부분이며 가정의 파탄은 사회질서의 부분적파괴라는 주장은 사실 명분이고 실제 주장은 더 현실적이다.

사회인습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부정한행위는 눈감아주는데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들이 보호받을 마지막 법적장치로 보는사람이 많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혼소송을 맡아줄변호사를 선임할 자력도 없는 현실에서 「고소장」으로 대신한다, 『고소한들 없던 돈도 나온다』는 현실을 무시할수 없다는 주장도있다.

간통죄가 없어질때 우리사회가 성적으로 더 분방하고 문란해질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속단할수는 없다.

다만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지위가 향상되고 가족법상으로 남녀평등이 이뤄질때 간통이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범죄로 처벌받는일은 없어질것이라는 예견은 가능할것같다.

韓英洙의원 말고도 간통죄로 화제를 뿌린 인사가 많다. 그중의 한사람이 유신체제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을 지냈던 李모변호사.

이번에 구속된 韓의원은 돈 실정법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화제의 초점은 야당국회의원인 그가 왜 아직도 修身齊家의 德目개념속에 살고있는 이나라 사회풍토를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崔奎植기자】

地平線

해마다 2천만명의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 보다많은수의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을 피가로紙는 얼마전에 <대규모의 인간교환>이라고 표현한일이 있다. ▼超産業化社會의 상징은 旅行의증가라고한다. 요즘 자가용차를 가진 미국인들은 한해에 1만마일 이상을 운행, 자기생애에 3백만마일넘게 여행하는 사람 만도 수백만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마차를타던 1914년의 미국인의 연간평균 여행거리는 1천6백40마일, 일상생활의보행거리 1천3백마일을 빼면 수송기관으로 여행한 거리는 3백40마일밖에 안됐다. 평균수명을 54세로 잡으면 일반미국인이 일생동안 움직인거리는 70년전에 8만8천5백마일이었는데 지금은 그30배가 넘는다는얘기가 된다. 놀랄만한 변화다. ▼67년통계로 延1억8백만명의 미국인이 通算3억6천만번에걸쳐 집에서 1백마일이상 떨어진곳에 나들이했다는 숫자도나와있다. 여행, 이민, 휴가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아니다. 독일사람 1백50만명이 스페인에서 휴가를보내고 한국에도 한해1백만명을 넘는 觀光客이 세계각지에서 몰려온다. 농업시대엔 상상할수 없던 대규모이동이 20세기 후반에들어 현대의遊牧民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해외 각국에의 여행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활짝 열린다. 親知초청에 의한 海外여행이 허용된것이다. 지금까지 訪問여권에는 3등친이내 친척의 초청장이 있어야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는사람>이 여비와 체재비 부담조건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여권이 나오게됐다. 새해부터 50세이상은 관광여행도 즐길수있다. 여행자유화시책의 물결에따라 올해다섯달동안의 여권발급건수가 15만9백62건으로 작년보다 20%늘었으니 해외여행의 인기를 알수있다. ▼그 여행을 떠날수있다고 너도나도 즐거워하지만 鄕愁心이강한게 한국민이기도 하다. 내집 내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시대변천속에서도 변치않는 모양이다. 엊그제 KBS가 보여준 <望鄕40년…하바로프스크의 韓人들>을 보면 안타까운마음을 금할수없다. 크게 번성한 조국의덕택으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가지만 귀환을 기다리는 동포들의 대책도 잊어선 안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VETERANS ASSOCIATION OF K.M.C. IN CANADA
재캐나다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및 한국참전용사 합동야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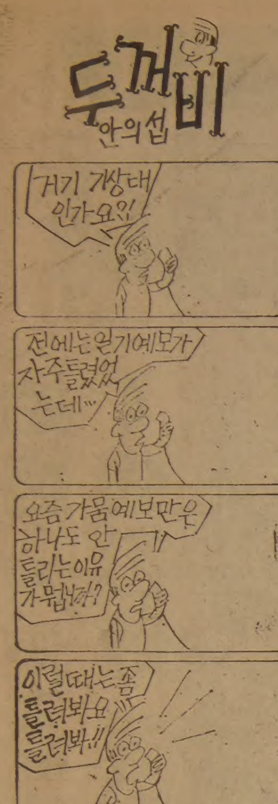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전 한국동란에 참전하여 우리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불고기와 김치를 대접하며 전우애를 돈독히 하는 합동 야유회를 갖게 되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7월10일(토) 오전11시
장 소: PETTICOURT CREEK CONSERVATION PARK
참 조: 불갈비와 음료수는 본회에서 준비함.
우천시는 다음주 동일장소·시간으로 연기함.

연락처: 회 장: 남상현(424-3035)
부회장: 최장복(591-6859)
총 무: 김명정(652-0370)
부총무: 송기선(621-2059)
재 무: 이회용(827-0622)
섭외: 김성배(699-6583)
체육: 이인모(691-3666)
진행: 하주용(769-5956)
오락: 서동헌(863-9925)
감사: 박찬도(924-5155)
공 보: 김종권(276-1958)
봉 사: 황 훈(759-5995)
고 문: 고종옥(863-0415)
박동열(679-7390)
정운학(444-9515)
홍도익(691-9414)
최승낙(364-2890)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전우회 회장 남 상 현

두꺼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75년만의「6월가뭄」

氣象臺 창설이래 最大 중순께 짧은장마

1907년 중앙기상대가 창설된이래 가장극심한 6월 가뭄이 7월중순까지 계속되면서 폭염이 기승을부리게될 것 같다。지역에 따라 한두차례 소나기는 내릴것같지만 본격적인 장마는 7월중순께나 시작, 예년보다 늦게찾아와 빨리끝날 전망이다。

중앙기상대는 30일 7월의 기상전망을통해 우리나라의 장마는 보통小暑인 7월7·8일께부터 시작돼 24·25일까지 보름간 계속된후 본격적인 더위가시작됐으나 올해는 기압배치의 이상으로 1주일쯤늦게와서 24·25일께끝나 장마기간이짧고 하순부터는 폭염이 기승을부리겠다고 내다봤다。

기상대는 장마기간중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나 전국적으로는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겠으며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적게내릴것으로 전망했다。

기상대는 7월상순에는 고기압의 영향을받는가운데 약한기압골의 통과가 예상돼 1~2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농사에흡족한 양의비는내릴것같지않아 농작물에 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대의 분석에 의하면 올6월의 강우량은 예년의 1백50~2백10mm의 20%에도 못미쳐 기상대창설이래 가장 심한 가뭄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3·4·5월의 강우량도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라는 양이라는것。

大邱의 경우 6월 예년 평균 강수량이 1백34·3mm에 이르고 있으나 올해는 28·5mm에 불과하며 光州1백49·9mm에 비해 34·0mm, 서울은 예년에 1백92·2mm였으나 올해는 고작15·7mm가 내렸을 뿐이다。

농수산부의 집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월가뭄 현상으로 30일현재 전국저수지의 44%에 해당하는 6천8백42개소가 메말라버렸고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은 4백13ha에 이른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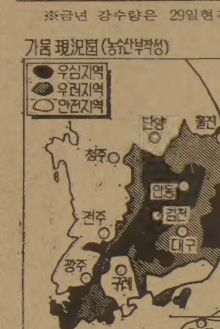
특히 가뭄의 피해가 심한지역은 영·호남지역으로 전북의 長水郡, 전남 新安 海南 莞島郡, 경북 義城 安東 盈德 金陵郡과 경남의 居昌 咸陽 昌寧 陜川郡등이다。

6월 강수량 (단위=mm)

지역	금년	예년	부족량
서울	15·7	192·2	176·5
仁川	6·4	143·4	137·0
水原	5·1	166·6	161·5
春川	19·3	153·7	134·4
瑞山	9·5	181·6	172·1
大田	8·1	191·7	183·6
清州	5·3	169·6	164·3
東草	42·2	—	—
江陵	60·5	152·9	92·4
大關嶺	124·9	—	—
蔚珍	28·1	—	—
鬱陵島	37·6	131·3	93·7
群山	23·4	140·6	117·2
全州	33·1	180·3	147·2
光州	34·0	149·9	115·9
木浦	20·3	148·6	128·3
麗水	57·4	191·5	134·1
濟州	25·5	177·3	151·8
西歸浦	64·5	—	—
秋風嶺	14·8	166·0	151·2
大邱	28·5	134·3	105·8
浦項	69·1	128·4	59·3
晋州	36·7	—	—
忠武	23·7	168·3	144·6
釜山	29·4	204·8	175·4
蔚山	8·7	155·0	146·3

※금년 강수량은 29일현재

가뭄 現況図(농산부작성)



旱害장비 매점단속

【全州】전북도경은 30일 양수기및부품, 고무호스등 한해장비의 매점매석을통해 가격을 조작, 부당폭리를 취하는행위, 농수로 개설작업방해행위, 남의논의 물길을 막는 얌체행위등 한해대책저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했다。【聯合】

兄님은 살아 있었다

兪麟穆-象穆형제의「40년恨」

◇대답없는 兄님… TV앞에 모여앉아 소련땅의 형님을 지켜보고있는 象穆씨 가족。왼쪽으로부터 兪象穆, 玉順, 이모, 鵬穆씨。

KBS放映「하바로프스크의 韓人들」畫面에 나타난 얼굴… 안타까운 對面

"42년蘇에남아 죽은줄 알았는데 소식이라도 전할길 없을지"

『형님―』。물론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은 없다。40년동안 생사조차 모른채 헤어져살던 형님이 지금 TV화면에 비추이고 있는것이다。

침이 마르기 시작한 동생들은 다음순간『형님이 살아계신것만이라도 다행이다』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흐느껴 울기시작했다。

30일상오 서울汝矣島 KBS보도국、방송국측에서 특별히 재방영해준 TV앞에서 兪象穆씨(61·서울道峰區月溪洞500의31) 형제들은 손수건을 꺼내든채 브라운관에 나온 형 麟穆씨(67)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동생은 40년만에 TV를통해 형님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으나 형麟穆씨는 동생들의 생사여부를 모를것이 확실해 안타까움이 더했다。

麟穆씨가 TV화면에 나온 것을 처음본 사람은 麟穆씨의 두째동생 鵬穆씨(54)。

鵬穆씨는 29일 하오 8시45분 KBS 제1TV가『망향 40년 사하바로츠스크의 한인들』를 방영한다는 예고를보고『혹시나』하는 심정으로 TV를 지켜봤다。

한동안 많은 한국인들의모습이 방영됐으나 형님의 모습이 나오지않아 실망、TV를 꺼버릴려던참에 鵬穆씨는 흠칫했다。그렇게 소식을 기다리던 맏형 麟穆씨의 모습이 비추이기 시작한것。

鵬穆씨는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한번 확인했으나『형님』임에 틀림없었다。鵬穆씨는 곧 象穆씨등 가족을 찾았으나 모두 외출중이어서 혼자만본 후 저녁에 모두에게 연락、이튿날인 30일 KBS로 찾아가게된것。

象穆씨 가족들은 TV를보는도중 브라운관에 나온 큰형 麟穆씨가『어머니(李東榮)는 지난66년에 돌아가셨으나 하바로츠스크에사는 우리 4남매와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있다。

아이들은 모두 한국말을 잘하고 있다』며 건강한모습을 보이자 주위사람도 의식하지 못한채 모두 손수건을 꺼내들거나 손등으로 눈물을닦았다。

鵬穆씨 형제는 모두 8남매。어려서 아버지를 일찍여의고 홀어머니밑에서 삼촌이 일본에서 면(綿)공장을 경영하는것을 도우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象穆씨는 21살때인 1942년 단신귀국했고 鵬穆씨와 鴻穆씨 큰누나 玉順씨등이 해방되기 한달전인 45년7월 현해탄을 건너귀국했다。당시 큰형 麟穆씨는 어머니와 남은형제들을 데리고 하바로츠스크에 남았었던것。

그후 다른교민들은 주소를 찾아 편지왕래를했지만 이들은생사조차모른채살아왔다。

象穆씨는 큰형이 TV에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우리도 돌아가셨을것으로믿고 지난77년부터 제사를 지내고있다』고 중얼거렸지만 TV속의 형님이 알아들을리는 없었다。

鵬穆씨는 형님의 모습이 몰라보게 늙었고 말도 더듬거렸다면서『형님마저 돌아가시기전에 만나볼수도 없겠느냐』면서『소식이라도 전했으면 한이 없겠다』고 했다。【金周彦기자】

有夫女 30명 농락

2천만원 喝取 카바레제비족 4명수배

【大邱】대구 南部경찰서는 30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장족으로 행세 카바레서 만난 은행지점장부인 기업체간부부인등 유부녀 30여명과 정을 통한뒤 이들의 약점을 이용, 2천여만원을뜯어온 余龍守씨(41·경북龜尾市善基洞705)와 朴敬浩씨(42·경남金海郡進永邑本山里81)등 4명을 공갈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余씨등은지난 5월9일 하오 9시께 大邱市北區七星洞 뉴욕 캬바레서만난 모은행 대구지점장 부인 김모씨(36)에게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 2차례 정을통한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2회에 걸쳐 현금 3백50만원을 갈취했으며 지난 4월말에는 같은 뉴욕 캬바레에서 알게된 모기업체간부부인 정모씨(38)와 4회에 걸쳐 관계를 가진후 현금50만원을 받아내는등 같은수법으로 유부녀 30명으로부터 지금까지 2천여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聯合】

藥師없는病院、처방전

保社部·藥師會합의「임의분업」示範기간중

보건사회부와 대한약사회는 1일부터 木浦등 6개 2종보험지구에서 기존방침대로「임의분업」방식에 따라 의료보험을 실시하되 향후 6개월간의 시범기간에 약사없는 병원에서의 처방전발행방안을 확보키로 합의했다。

이날 보사부를 방문한 대한약사회 金明燮회장등 회장단5명은 金正禮보사부장관과의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문서를 작성했다。

한편 보사부당국은 2종의 보사범지구에서의 처방전발행등 의·약관계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앞으로 3개월이내에「의·약협업추진위원회」를설치, 운영키로하고 약사회측이 요구하는「처방전발행을위한 새로운방안」도 이위원회의 협의를거쳐 확정키로했다。

보사부당국은 보사부 기획관리실장을 이위원회 위원장으로하고 의사대표 2명, 약사대표 2명, 보험자단체 2명, 의·약학계 교수, 언론인, 법조인및 보사부관계국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관련기사10면

한편 약사회장단 일행은 이날 金장관과의 면담에서 6개월 시범실시결과 처방전발

親知초청 海外여행擴大

오늘부터 항공료·경비부담조건 招請 1백만원外換銀에 預置…年1회가능

親知(외국인포함) 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이 1일부터 허용된다。

지금까지 방문초청은 부모형제 자매등 3촌이내의 血族이 초청할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여권시행령개정에따라 7월1일부터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친지가 항공료및 체재비부담을 조건으로 초청장을 보내오면 여권을 발급받을수있게됐다。

친지초청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우선 초청장을 받은뒤 1백만원의 예치금을 한국외환은행에서 실시중인 기예금이나 정기적금중 擇一, 납입해야 하며 여행자격은 1년에 1회, 1구좌당 1로회 제한돼있고 출국전에 중도해약 또는 명의변경을 할때는 여행자격을 상실케 된다。

여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돼있으며 귀국후 6개월이내에는 다시 친지방문이나 관광여행을 할수없다。

정부는 친지초청에의한 해외여행에 이어 내년1월 1일부터는제한된범위안에서의 관광여행도허용할방침이다。

내년1월부터 관광여행을 하려면50세이상으로2백만원의예치금을납부해야하며여행기간은3개월이내로돼있다。

昇州 쌍암고개서 市外버스굴러

死亡7·重輕傷30명

◇운전부주의로 60m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한 광주고속버스。이사고로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順天】30일상오10시께 전남昇州郡西面飛月里 남해고속도로 승주 쌍암재에서 광주고속소속 전남5아1055호 직행버스(운전사 權判龍·40)가 운전부주의로 50m언덕아래로 곤두박질해 승객 文今單씨(53·제주南濟州郡表善面加時里)등 7명이 현장에서숨지고 林錫鎭씨(60·전남光山郡林谷面林谷里)등 30여명이중경상을입었다。

이날사고는 光州에서 승객38명을태우고 麗水로가던 직행버스가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서 시속90km로 질주하다 커브길에서 핸들을 급히꺾는 바람에 오른쪽 산비탈 벼랑을들이받은뒤 20m쯤 계속달리다 당황한 운전사權씨가 핸들을 바로잡지못하고 왼쪽으로 또다시 급히꺾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일어났다。

사고버스는 차체와 의자등이 엿가락처럼 휘어 형체를 알아볼수없을 정도였으며 버스안에있던 승객들은 피투성이가 된채『사람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있었고 버스주위에는 승객들의 옷과 소지품등이 사방에 흩어져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사망자와중경상자들은 順天시내도립병원·김종택정형외과등에 분산, 가료중이나 사망자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어음事件 7일公判

李·張부부등 7명만 우선審理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7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주심 李玲愛·배석 張容國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사건의 관련피고인은 30명(구속28명·불구속1명·법인체1)이나 첫공판에서는 李·張부부와 大和산업관련자등 7명의 피고인만 출정시켜 이들에대한 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 부분에대한 심리를할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사건 관련피고인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9개항의 기소사항을 항목별로 나눠 관련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먼저 끝내고 증거조사과정에서부터 병합심리하기로했다。

첫공판에 나올 피고인들은 ▲李哲熙(59·大和산업회장) ▲張玲子(38·〃명예회장) ▲金濟振(53·〃사장) ▲尹錫錄(35·〃이사) ▲金正一(38·〃경리부차장) ▲金勇男(38·〃비서실차장) ▲徐香蓮(55·여관업·불구속)등이다。

미스코리아眞 朴仙嬉양 유니버스大會 향발

◇朴仙嬉양

82년도 미스코리아眞 朴仙嬉양(19·啓明大 응용미술과2년)이 미스 유니버스선발대회에 참가하기위해 30일하오4시 대한항공012편으로 페루의 리마로떠났다。

自動판매기에 들어있던 음료수에 異物質

【春川】청량음료수 자동판매기속에 들어있던 써니텐병에서 이물질이나와 말썽이되고있다。

29일하오 5시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 1년 박승록군(21)이 동교학생회관 휴게소에 설치되어있는 청량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2백ml짜리 써니텐2병을 꺼낸후 병뚜껑을 열어보니 병속에서 악취가 풍기고 흰앙금등 이물질이 섞여나왔다는것。

이에대해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심모여인(50)은 이날오 春川써니텐대리점(소장 김원식·35)에서 10상자를 구입해와 일부를 자동판매기속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장은『지금까지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변질된 써니텐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聯合】

5行뉴스

◆무허직업소개 1명 구속 【大田】충남도경은 30일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충남·북도내의 유흥업소에 여자종업원들을 소개해준 이북실씨(35·여·大田市中區宣化洞361)를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聯合】

◆밀수꾼 검거한 警官특진 【永川】밀수꾼이 5백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범인을 검거한 경북永川경찰서 서문파출소장 孫兵一경사가 30일 경위로 1계급 특진했다。【聯合】

「바닥 人生」

退職한 서울市給水課직원 姜鴻씨

골목配水管까지 훤한 "땅속達人"

서울시 상하수국 급수과의 姜鴻씨(58·사진·서울麻浦區延南洞27의4)가 30일 정년으로 퇴임했다。서류상으로볼때 그는 기능직으로 지난55년부터 27년동안 누수방지차의 운전기사。그러나 그는 서울시내 웬만한 도로와 골목의 급·배수관이 손바닥보듯 훤하다는 땅속의 達人이다。북부수도관리사업소 소속이면서 그는 西大門구청자리에 있는 상하수국에 파견돼 상주근무해온 그의 정년퇴직은 급수과로서는 대단한 타격을 받을만큼 큰 사건이다。고용원까지합쳐 11명인 급수과는 누수방지·배수(配水)업무에서 그의「經驗」이 정말 아쉽게 됐다。하는일많고 고달프기 짝이없어「바닥課」라고 스스로를 낮춰부르기도하는 그들로서는 姜씨만큼 현장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게 사실。

姜씨의 유창한 설명에 의하면 世宗문화회관 뒷길에는 1백50mm 배수관이 있고 世宗문화회관옆에는 3백50mm짜리가 묻혀있다。日本대사관 일대는 1백50mm이다。

그는 서울시내의 요즘수도사정은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말한다。눈코뜰새 없었던 수년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하루 5~6회정도 출동하면 되는수준까지 와있다。

그는 늘 대기하고 있는 인생이었다。어디선가 상수도관이 터지면 직원들을 태우고 달려가 터진 지점의 물길을 잡기위해 필요한 水系의 상수도밸브 개폐작업을 돕는다。그런데 어느 밸브를 어느정도 막아야하는가가 어렵다。아무리 도면을 잘 알아도 신참은 해낼수가 없는 일이다。그래서 운전사인 姜씨가 어느새 작업반장노릇을 하게됐다。그는 눈을감고도 밸브를 기막히게 조절하는 촉감을 가졌던것。

이일은 겨울이 더 고통스럽다。한밤에 연락이오면 출근、작업을 벌이지만 휘발유를 정량 배급 받을때는 차량의 히터도 틀지못한채 추위와 싸웠다。빨리 고치기위해 가드레일을 넘어가다 정강이 살점이 떨어져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

지하의 상수도망엔 속속들이 밝은 그가 한가지 모를것은 왜 급수과직원을 자주 바꿔 일이 안되게하느냐는 점이다。그가 겪고보니 상수도업무는 전기·하수도를 다루는 일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다。

그는 고향처럼 살아온 급수과를 떠나게되자 개인택시 면허신청을냈다。咸南洪原에서 46년 월남、「부지런히 일하자」는 신조로 살아왔다。그는 실향민이다。【任喆淳기자】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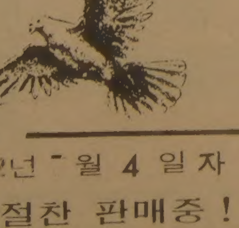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격조높은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은 새시대를 사는 엘리트여성들의 다정한 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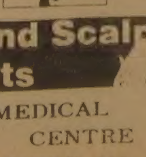


1982년 월 4 일자
인기절찬 판매중!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보십시오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신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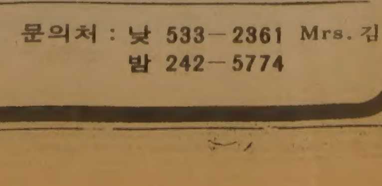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黃金의다리」 마라도나 꽁꽁묶어

伊,強豪아르헨 꺾었다

始終 거친플레이 警告속출

4強진출 유리한 高地점령

월드컵축구

守備위주 西獨·잉글랜드 得點없이 비겨

2-1

【마드리드29日=聯合】 이탈리아가 강적 아르헨티나를 꺾었다. 이탈리아는 30일새벽(이하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사리아 경기장서 벌어진 월드컵축구 2차리그 C조 경기에서 78년 월드컵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2-1로 물리쳐 4강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勝利굳히고 환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카브리니가 월드컵 축구대회 2차리그 對아르헨티나戰에서 이탈리아 팀의 승리를 굳혀준 2번째 골을 성공시킨후 기쁨에 넘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팔을 치켜들고있으며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가고있다. 【바르셀로나29일 AP電送=聯合】

◇2차리그2일
◆B조
서독 0-0 잉글랜드
(1무) (1무)
◆C조
이탈리아 2(0-0, 2-1)1 아르헨티나
(1승) (1패)

이날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경기장서 벌어진 B조西獨-잉글랜드 숙명의대결은 0-0 무승부로 끝났다.

2차리그 사흘째경기는 7월1일 하루를쉬고 2일새벽 북아일랜드-오스트리아(D조), 소련-벨기에대결(A조)로 벌어진다.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치명상을 입게되었는데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을 물리치고 이탈리아가 브라질에 패할경우 골득실차에의해 4강을 바라볼수있다.

『마라도나를 부숴버리자』는 이탈리아의 작전은 주효했다. 이탈리아의 베아르조트 감독은 클라우디오·젠틸레를 마라도나의 마크맨으로 내세워 철저하게 마라도나를 물고늘어지도록 지시했고 젠틸레는 그림자처럼 마라도나를 따라 다녔다. 마라도나가 밀착 마크 당하자 아르헨 공격진은 리듬을 잃고 갈팡질팡, 마리오·켐페스와 라몬·디아즈의 콤비 플레이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56분 마르코·타델리의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한후 68분 안토니오·카브리니가 왼발슛을 성공시켜 2-0으로 승리를 굳혔으며 아르헨은 막판에 주장인 파사레야가 프리킥으로 1골을 간신히 만회 했다.

이탈리아-아르헨 대전서는 거친플레이와 반칙이속출, 모두 5명이경고를 받았고 아르헨의 HB 아메리코·가예고는 경기종료 6분전퇴장 당했다.

경기가 끝난후 이탈리아의 베아르조트 감독은 『젠틸레로 하여금 마라도나를 마크하게 한 작전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만약 HB 타델리에게 마라도나 견제책임을 맡겼더라면 우리는 미드필드에 구멍이 뚫려 자연히 플레이가 수비적이되었을것이고 이렇게 되었다면 골을 얻지못했을것이다. 브라질과의 대전서도 철저한 맨투맨 방어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의 메노티감독은 『이탈리아에 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뜻밖의 결과다. 우리는 잘 싸웠지만 이탈리아의 교묘한 수비플레이에 말려들었다』고 패인을말했다. 메노티는 마라도나가 20여회 이상의 파울을 당했으나 루마니아의 라이네아 주심은 젠틸레의 반칙에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 했다.

7만5천여 관중이 모인가운데 벌어진 西獨-잉글랜드 경기는 돌다리를 두드리는식의 조심스런 게임이었다. 공격하여 골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보다는 失點하지않겠다는 생각이 앞서 게임의 흐름이 매우느렸다.

이런 가운데서도 세차례의 득점기회가 있었다. 전반19분 잉글랜드 브라이언·롭슨의 헤딩 슛을 서독 GK 슈마커가 아슬아슬 쳐냈고 이어 파울·브라이트너의 스핀 슛을 잉글랜드 GK 피터·실튼이 선방했다.

잉글랜드는 1차리그 프랑스, 체코와의 대전때 출전시켰던 멤버를 거의 그대로기용했으나 西獨은 후르베시대신에 우베·라인더, 리트발스키 대신에 한지·뮐러, 펠릭스·마가트를 대신하여 베른트·포르스터를 그라운드에 내보냈다.

金東吉、단발KO勝

亞洲아마복싱

한국 銀2·銅10개 확보

申昌錫과 李鉉桂의 패배로 우울해있던 한국선수단에 金東吉이 통쾌한 KO승을 선사했다.

29일 잠실체육관서 속행된 제10회 아시아 아마복싱선수권대회 4일째경기에서 한국의 유력한 금메달후보인 金東吉(라이트·웰터급)은 우세한 기량으로 라우·윙키(홍콩)를 1회 31초만에 KO로,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는 찰룸모(태국)를 판정으로 각각 물리쳐 은메달 2개를 확보했으며 李鉉桂(라이트급)와 申昌錫(밴텀급)은 각각 패해 銅메달에 머물렀다.

이날현재 한국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0개를 확보했으며, 泰國은 은메달3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金東吉은 첫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라이트·훅 단발을 라우·윙키의 안면에 작렬시켜 31초만에 간단히 KO승, 사디크(파키스탄)를 판정으로 제압한 옴포르마하르(태국)와 3일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됐다.

許永模는 첫라운드 14초를 남기고 왼손잡이 찰룸모에게 원투스트레이트를 허용, 한차례 다운됐다.

그러나 2라운드중반에 라이트어퍼컷트로 전세를 만회하고 마지막3라운드에서 라이트·스트레이트와 훅으로 착실히 득점,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거두고 日本의 강타자 세가와와 결승서 맞붙는다.

전날 승리를거두었던 세가와는 이날도 나트나수리아(스리랑카)를 1라운드 1분1초만에 KO로꺾어 펀치력을 과시했다.

申昌錫은 왼손잡이 퐁스리(태국)에게 판정패했으며 李鉉桂는 泰國의 사와디원에게 2회2분57초만에 KO로 주저앉았다.

◇제4일전적
▲라이트·플라이급준결승
許永模(한국) 판정 찰룸모(태국)
세가와(일본) 1회KO 나트나수리아(스리랑카)
▲동밴텀급
퐁스리(태국) 판정 申昌錫(한국)
무크라트(파키스탄) 판정 찬칸콩(홍콩)
▲동라이트급
사와디원(태국) 2회 KO 李鉉桂(한국)
프라단(인도) 판정 아르완(인도네시아)
◆동라이트웰터급
金東吉(한국) 1회 KO 라우·윙키(홍콩)
옴포르마하르(태국) 판정 사디크(파키스탄)

史上최대 54개팀 參加

鳳凰大旗 고교야구 내일 1·2回戰 對陣추첨

오는 8월1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되는 제12회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에는 대회사상 가장 많은 54개팀이 출전, 한여름 白球의 드라마를 펼치게 된다.

처음 봉황대기에 출전하는 학교는 경기상 오산고(이상 서울) 동래고(부산) 북평고 원주고(이상 강원) 경주고(경북)등 6개교.

1、2회전 대진추첨은 오는 2일 하오2시 한국일보 12층 강당서 실시된다.

◆지역별 출전교
▲서울(17팀)=경기 경기상 덕수상 동대문상 명지 보성 배명 배재 서울 선린상 성남 신일 오산 장충 중앙 충암 휘문
▲부산(6)=경남 경남상 동래 부산 부산공 부산상
▲경기(5)=동산 심석 인천 인천체 제물포
▲강원(4)=강릉 북평 원주 춘천
▲충북(3)=세광 영동 청주
▲충남(4)=공주 남대전 대전 천안북일
▲전북(2)=군산상 전주
▲전남(4)=광주상 광주일 광주진흥 목포상
▲경북(6)=경북 경주 대구 대구상 성광 포철공
▲경남(2)=마산 마산상
▲해외(1)=재일동포

錦湖高 8強선착

대통령金盃축구、麗州商에승부킥勝

錦湖高는 30일 光州무등경기장서 속개된 제15회대통령금배 쟁탈 전국 고교축구대회 5일째 3회전서驪州商高와 0-0으로 비기고 승부킥 5-4로 이겨 8강에 선착했다. 이날 驪州商은 승부킥에서 2번키커 任江河가 실축, 분패했다.

이날 聖都高는 江景商과의 2회전서 1-1로비겨 승부킥 4-2로 승리, 16강에 올랐고 慶熙高도 群山第一과 0-0무승부를 기록, 승부킥 4-3으로 이겨 16강에 합류했다.

◇제5일전적
▲3회전
금호고 0-0 여주상
〈승부킥5-4〉
▲2회전
성도고 1(1-1, 0-0)1 강경상고
〈승부킥4-2〉
경희고 0-0 군산제일
〈승부킥4-3〉

美 프로농구팀 中共서 親善戰

【北京29日UPI=聯合】美國프로농구협회(NBA)는 소속팀을 오는7월 中共에 보내 일련의 친선경기를 통해 독자적인 스포츠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NBA선수협회가 29일 밝혔다.

美프로농구선수가 中共에서 경기를 갖는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들의 경기는 양국에 중계방송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0>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 ㉚

『난 그런 부자 고아원에 못있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어쩌다가 얻어먹은 것 같아。난 그런 미국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런 애들도 더러 있었지。입맛이 까다로와 바다 건너온 육기가 끝내 비위에 안맞는 애도 있었지만, 빌어먹다 온 애중엔 육기에 허겁지겁 배가 터지게 처먹고는 기름기를 소화시킬 힘이 모자라 당장 토사곽란을 일으키는 녀석이 수두룩했지。나도 빌어먹다 들어갔지만 내 위장은 워낙 튼튼해서 그때 잘 먹고 잘 삭인 게 부잣집 자식 어려서 녹용 먹어둔 것처럼 지금까지 힘을 쓰는 걸』

『설마』

오목이는 조그맣게 말하고 서글프게 웃었다。일환이는 어떡허든 오목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않으려는듯이 제말만했다。

『한번은 그렇게 갑자기 과식한 토사곽란으로 한꺼번에 세 아이가 죽어 나간 적도 있었다。원조도 풍족할때였지만 감사도 심할 때여서 원장이 사색이 됐었는데 어떻게 교제를 잘 했는지 꾸며대길 잘 했는지、단순한 영양실조로 보도가 되더군。신문에서 일제히 떠들어대자 갑자기 먹을 게 밀어닥치는데 인정은 메마르지 않았다는 걸 고아원 처럼 시시때때로 느끼고 감사해야하는데도 아마 없을 거야。결과적으로 원장만 수지 맞았지만 말야。내가겪은 원장중에선 그래도 유원장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하긴 제 자식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내가 죽이고싶도록 미워한 원장은 바로 제 자식은 콩나물국에 이팝 먹이고 우린세끼 미제 꾀기국에 수제비만 먹이던 피난시절의 그 부산 고아원 원장이거던。그들의 식탁을 몰래 훔쳐보면서 침을 삼켰을줄 알지만 천만에, 살의를 품었다면 넌 날 독한 놈이라고 정 떨어져하지나 않을까몰라。너 콩나물국 소로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일줄 아니? 지금은 몰라도 돼。넌 더 어려운 공부도 잘했으니까 곧 배울수 있을거야。라면으로 끼니를 때울때 마다 구제품 통조림 넣고 끓인 수제비국 생각을 하곤하지。비슷해。느글느글한 거하며、기름기가 동동 뜨는 거하며…。마치 내가 혈혈단신 고아신세라는 걸 잠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벌 주듯이 줄기차게도 라면을 먹어왔구먼。이제 라면 꿈을 생각을 하니까 시원섭섭하다면 너 화나겠지?』

일환이가 보기보다는 훨씬 예민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그가 갑자기 말이 많아진게 그만큼 부자연스러웠다。그는 오목이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지않기위해 그렇게 열심히 지껄이고 있지도 몰랐다。

자신의 두서없는 긴이야기가 자장가가 된것처럼 그가 비로소 잠이 들었다。그는 더이상 뒤채지 않았다。그의 돌연한 깊은 잠이 마침내 숨이 끊어져 뒤채기를 멈추고 누운 잉어처럼 무참해보였다。

오목이는 겁이나서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엎드렸다。그의 가슴은 넓고 따뜻했고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건강한 목숨과 착하고 성실한 마음까지를 느낄수가 있었다。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리라。그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또한 그를 기만하리라。그가 아무것도 모르고있기를 원할때까지。

오목이는 그의 숨결을 지키느라 한잠도 못잤는데 날이 밝았다。외박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하룻밤 잠자리를 벗어던지고 허둥지둥 떠나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1>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 ㉛

일환이의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얼굴이 낯설어 떠올랐다。그가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었다。그와 떨어진게 정말일까? 방안엔 희미하게 그의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그러나 지금 그의 곁을 떠나면 고런 몸에밴 그의냄새는 새벽공기속에 흔적도 없이 무산되리라。

이불이 짧아 발치의 그의 발목이 드러나게 보였다。방뒤로 드러난 거꾸의 후리처럼 적기고 고생스럽고 미더워보이는 발이었다。

『일어나요、일어나』

오목이가 소근거리며 일환이의 가슴을 흔들었다。그가 찡그리며 눈을 부볐다。그리고 낯선듯이 오목이와 방속을 휘둘러 보았다。그런 그의 눈엔 결코 그녀가 이해할수 없는 그가 거친 거칠고 신산스러운 삶의 노독이 배어있었다。

이윽고 그가 어젯밤의 일과 오목이를 생각해낸듯 희미하게 웃었다。수줍은 웃음같기도하고 낭패한 웃음같기도했다。오목이도 덤덤아 수줍어서 얼핏 눈길을비키면서 그가 낭패하고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어젯밤의 일을 시험할수도있다고 생각했다。그녀는 시선을비키제 선고를 기다리듯이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그가 일어나는 기색에 그녀는 움찔 어깨를 떨었다。

그가 작은창문을 열었다。찬바람이 말려들어왔다。그가 한숨을 내쉬었다。단지 심호흡을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둘러야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그가 진국스럽고 정이 깊은 남자란 생각이 새삼스럽게 그녀를 위로했다。

『잘 잤어요?』

오목이가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며 그를 쳐다봤다。

『너 한잠도 못잤구나?』

그는 얼핏 스쳐올뿐인 오목이의 눈길에서 그녀의 불면을 읽고 근심스럽게 물었다。그와 몸을 섞은 사이란 사실이 잠시 그녀를 멍하게 했다。그가 친근하게 그녀 곁에 서있었다。

『아뇨。잘 잤어요』

『할 일을 어떻게 나눈다?』

그가 수염이 까슬한 턱을 한손으로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긴 얼굴을 했다。

『필요?』

『오늘 할 일 말야』

『같이 해요』

『따로 할 일도 있어』

『말론 혼자서 방 얻으러 다니긴 싫어요。세간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설마 그런걸 혼자 시킬라구。우선 여길 나가자구。나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의논해 보자』

해장국집은 이미 한축 붐비고 난 후인양 어지러진채 한산했다。

『집국은 이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마 꿀을 봤나봐』

일환이는 별로 식욕 없어하는 오목이와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주인에게 고루 신경을 쓰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라면만 먹었다더니 이런데도 다 와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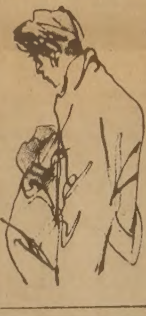
『벌써 바가지 긁기야?』

『어머、착각해』

오목이가 눈을 흘겼다。

『난 지금부터 가재로 갈까。사장님 나오시기 전에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아。오늘 일 나갈데가 있거든。가정집에 온수보일러 설치하는 작은 공사니까 나는 단도리만 해주고 빠져나올 수 있어。내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가 으스대고 싶어하는게 오목이 보기에 좋았다。



流星의 賊 <42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⑳

김금단의 자살시체를 발견한 것은 교대하여 돌아오는 보초들이었다。이 소식에 접하자 신불이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소나무 가지에서 정중하게 금단의 시체를 안아내렸다。시체는 벌써 얼음장처럼 되어 있었으나 얼굴의 아름다움은 생시그대로 완연했다。

지켜보는 군사들에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으나 신불의 가슴 속에 회오리와 같은 한숨과 통곡의 폭우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신불은 눈으로 김금단의 얼굴에 묻은 오점을 깨끗이 문지르고 자기의 수건으로 닦은 후、그시체를 안고 계남의 막사 앞까지 왔다。

계남이 마중 나와 있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신불이 눈물을 머금자 계남의 말이 있었다。

『심리를 열고보면 불쌍하기 한량이 없고 한 소위를 생각하면 능지처참도 미치지 못할건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회개한것이 아니겠는가。그러니 그 괘씸한 죄는 묻지 않기로하고 불쌍한 여자라고치고 잘 묻어주어라』

군사들 가운덴 목수들도 있었다。적당한 나무를골라 관을 짜고、만일을 위해 간직한 필목으로 수의를 만들었다。이윽고 양지쪽으로 짐작되는 산허리에 자리를잡아 묘혈을팠다。이렇게해서 약식으로나마 김금단의 장례를 치른것은 초경 가까와서였다。

일면 하얀 눈밭에 그곳만 흙빛으로된 봉우리앞에 꿇어앉아 신불의 긴 묵도가 있었다。경문을 모르는 그가 염불을할 까닭이 없었다。그의 가슴속에 거래하는 말은 오직 한마디—

(우리의 만남은 너무늦었다)

캄캄한 그믐밤의 어둠이 주위를 꽉 채웠는데 천상에서만은 임진년 마지막 밤의 별들이 찬란했다。

(우리의 만남은 너무 늦었다)

계남은 신불의 등을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짐작하며 김금단이란 여자의 일생을 생각했다。

그 여자의 일생은 계남자신의 어머니 강씨의 일생에 통하는 것이 있고、어느 부분은 이숙랑의 일생에 통하는 것이 있었다。어쩌면 이나라에 생을 받은 뭇 여성의 일생과도 통하는 것이 있을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계남이 김금단의 죄를 석연하게 용서한건 아니다。그저 불쌍했다。말하자면 연민의정이 책망의 노여움보다 컸던 것이다。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앉아 있을것 같은 신불을 일으켜 세웠다。

『신공의 마음 모르는 바 아니오만 우리 막사로 돌아가 이해를 보내는 잔치를 합시다。애이불상(哀而不傷)이란 말이 있는 것이오。이나라의 백성모두가 애이불상해야 할 처지에 있지않소』

하고 계남이 신불의 손을 잡았다。

『그 요녀 같은、그 화냥 년、찢어죽여도 죄는 죄대로 남을 그년이 왜 이렇게 불쌍하단 말입니까』

신불은 막사에 도착할 때까지 울먹거렸다。그러자 돌연 신불이 별이 찬란한 하늘을 쳐다보며 깔깔대고 웃었다。그러다가

『내가 누굴 불쌍하게 여긴단 말인가。불쌍한 건 난데』

하고 그 웃음을 허허한 웃음으로 바꿨다。

外信안테나

前아르헨大統領 權力남용罪 被訴

레오폴도·갈티에리 前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권력남용과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제소됐다고 아르헨티나 사법부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제소내용에 따르면 갈티에리 前대통령은 포클랜드전쟁에서의 패배로 대통령직을 사임한지 3일 후 1백1건의 공문서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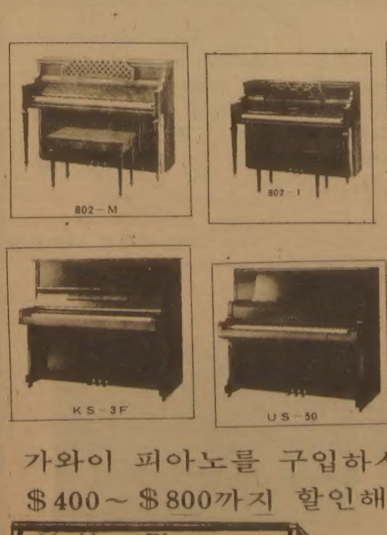
教皇 팔人權利주장 그들도 故國가져야

로마·가톨릭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29일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어느때보다도 강력히지지, 팔레스타인인들은 『고국』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교황은 이날 전쟁중인 레바논의 평화를위해 聖베드로 대성당에서 특별미사를집전, 『팔레스타인인들이 고국을 갖고자하는 소망을이루고 이 지역 모든국민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바티칸시티=AP】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싼닭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싸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화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Part Time (시간당 $7.00)
전축일에 취미있으신 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유경험자 Store Helper(남자) 구함.
Full Time. 전화 : 422－3121 (Mr. 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가정에서 봉재일 하실분 연락바람.
전화 : 530－1046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20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구직

스토아 매니저.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이상. 리스: 2년 +5년.
렌트 : $600. 아스킹 : $98,000+스탁(All Cash)
꼭 관심있으신 분만 내방바람. 전화 : 767－0762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 +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2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 +5년 전화 : 463－4846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주중 9:00a.m.～18:00p.m.)

1) Dry Cleaning Pick Up Store
Weekly Turnover: $1,000. Asking Price: $35,000
3 year lease + 3 year option. Store + 4 Bed Rm.Apt.
May be leased or bought.
2) Donuts Shop
Weekly Turnover: $4,000. Asking Price: $135,000
$65,000 down. Rent: $2,000 5 year Lease + 3 year option
Mr. Ryu 762－8255
Royal Trust Real Estate Co.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Varity Store for Sale(Hamilton) 전화 1－529－7491
(1)Store with 3 Bed room House. 년매상: $110,000 계속증가.
(2)Business only. 년매상: $300,000+곧 써브머린 open(최고지역)

Food Store 급매.
시간 짧고 수익성 좋은 가게를 급매코저 함.
주매상 : $12,500이상
2038 Queen S. E.
꼭 관심있으신 분 오후 3시이후 내방 바람.

Convenience Store for Sale
미시사가 Clarkson 지역
전화 : 822－2247 (Sa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개지 Hold해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룸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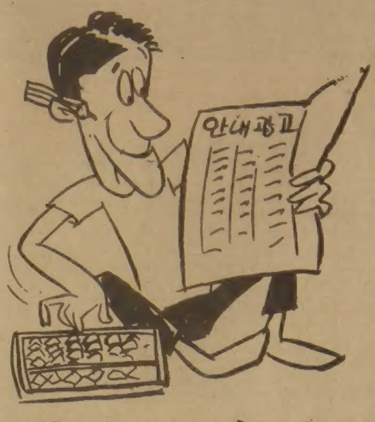
Room Mate 구함.(Downtown)
2 Bed Rm. Apt. 유학생 부부입니다.
전화 : 233－9534 (Mr. 정)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성공적인 사업투자 !

침체된
당신의 사업을
한국일보 광고로
해결하세요.
지혜롭게
불경기를
극복하실 것입니다

☎ : 533－2361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O.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